

白下 尹淳과 中國書法

李完雨*

차 례

I. 白下 小傳	III. 白下의 글씨
1. 家 系	1. 楷 書
2. 官 歷	2. 行 書
3. 學 問	3. 草 書
4. 交 遊	IV. 白下 글씨에 대한 評
II. 白下의 中國書法 인식	V. 白下 書藝의 의미

白下 尹淳(1680-1741)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서예를 널리 수용하여 다양한 서풍을 구사했던 서가이다. 오늘날 ‘朝鮮時代四大家’나 ‘朝鮮後期四大家’나 하여 백하를 거론하지만 그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서예에 대해서는 매우 한산하다. 본고에서는 중국서법에 대한 백하의 인식은 어떠한고 글씨에서는 어떠한 서풍을 수용·구사했으며, 그의 서예가 조선후기 서예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아울러 그간 백하의 傳記조차 정리되지 않았기에 그의 家系·官歷·學問·交遊를 살펴 백하의 서예를 이해하는 참고로 삼고자 한다.

I. 白下 小傳

1. 家 系

백하는 1680년 5월 24일 부친 尹世禧와 모친 李夫人 사이의 2남3녀 중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海平[경상도 善山府], 자는 仲和¹⁾ 호는 白下이며 노년에 鶴陰·讓叟라고도 했다.²⁾ 시조는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 『中庸』에서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이라 하여 치우치지 않고 過不及이 없다는 뜻의 “中和”로부터 나왔을 것이다. 백하가 仲子라서 中을 仲으로 하였을 터인데 그의 형 尹游의 字가 伯修인 것으로 짐작된다.

2) “尹白下는 貞陵 골짜기에 살았는데 도성 西小門下였으므로 호를 白下라 했다”(李奎象, 『一夢稿』, 『書家錄』 尹

고려 고종 때 상서좌복야를 지낸 尹君正으로 이후 5세동안 대신명현이 나왔으나 조선에 들어와 朴彭年의 姻親으로 坐錮되어 한동안 한미했고, 7대조 軍자감정 尹忭(1495-1549)도 趙光祖 문인으로 몰려 현용되지 않았다. 이후 6대조 尹斗壽(1533-1601)와 아우 尹根壽(1537-1616)는 1590년 宗系辨誣의 공으로 각각 海原·海平府院君에 봉해졌고 이듬해 西人 鄭澈의 建儲문제에 사직되나 임란이 일어나면서 복직되어 國王扈從과 對明外交에서 활약했다. 당시 그들은 西人였는데 평안도관찰사를 지낸 고조 尹暄(1573-1627)의 장인이 바로 東西分黨의 주인공 沈義謙였다. 증조 尹誼之(1605-66)는 淸道군수를 지냈고 조부 尹堧(1621-52)은 무췌했다.³⁾

부친 三友堂 尹世禧(1642-89)는 1666년 진사시에 합격하나 조부 사망으로 출사하지 못했고 그 뒤 증광별시에 누차 發解되어 1677년 의금부도사에 제수되나 나가지 않았다. 1681년 처음 連原찰방으로 나갔고 1682년 증광문과에 올라 승문원에 배속되었다. 당시 조정은 老論과 少論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부친은 강직한 성품으로 史局의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1683년 성균관전적·병조좌랑을 거쳐 1684년 사간원정언으로 나갔는데 그때 崔錫恒과 함께 이조판서 李翊을 탄핵하다 斥黜되어 衿川으로 退居했다. 그 뒤 1686년 平康현감에 임명되나 수개월만에 돌아왔고 이후 해군판관·성균관직장에 제수되나 역시 사직했다. 1688년 2월 사헌부지평의 명을 받고 병을 이유로 사직하려 하나 不許되었는데 그때 숙종에게 총애받던 병조판서 李師命을 탄핵하여 귀양가게 했고, 그 일로 黨議에 치우친 정치현실을 개탄하면서 병을 이유로 사직했다. 이후 홍문록에 오르기도 하였고 지방관으로 나가기도 했으나 곧 사직했다. 1689년 절도했다는 誣告로 수감되던 중 己巳換局의 大獄事를 듣고 우분강개하다 출옥후 병세가 악화되어 9월 16일 衿川鄉廬에서 사망했다. 모친(1643-1719)은 全州李氏 同揆의 따님으로 『芝峰類說』의 저자 李晬光의 증손이며 병자호란 때의 명신 李聖求의 손녀이다.⁴⁾

형 晚霞 尹游(1674-1737)는 음서로 찰방이 된 뒤 鎭川현감을 지냈고, 1718년 庭試에 文丙科로 급제한 뒤 言官을 거쳐 동래부사·대사간·평안도관찰사·대사헌·한성판윤·판서 등을 지내면서 지경연사·지의금부사·지춘추판사·지성균관사 등을 겸했다. 백하와 함께 늘 행동을 같이 했고 글씨로도 이름이 높았으며 시호는 翼憲이다.⁵⁾ 부인은 延日鄭氏 齊泰의 따님(1682-1761)으로 조선 양명학의 거두 鄭齊斗의 조카이다. 슬하에 아들이 없어 형의 세째아들 尹得興(1710-59)가 가계를 이었고 음서로 監役을 거쳐 林川군수를 지냈다. 며느리는 全義李氏 德壽의 따님(1709-40)이다.

淳條, 『韓山世稿』 卷20 所載. 정릉은 조선태조의 계비 神德王后 康氏의 능으로 오늘날의 서대문구 貞洞에 있었고 1409년 성북구 정릉동으로 遷葬되었다. 五行에서 서쪽이 白色이라서 그렇게 불렀다. 또 중년에 卜居處로 삼은 경기도 長湍의 白鶴山下도 이와 부합된다. 백학산[일명 白岳山]은 장단 서북쪽에 위치한다[표고 229m]. 군내 西道面 盤龍山 등에 해평윤씨의 산소가 있고 백하도 그곳에 묻혀있다(長湍郡誌編纂委員會 編, 『長湍郡誌』, 1980). 鶴陰은 白鶴山下의 이칭이며 讓叟는 벼슬을 사양한다는 뜻의 自稱이다.

3) 『海平尹氏白沙公派譜(丙辰譜)』(『海平尹氏大同譜』 卷3). 尹淳, 『白下集』 卷6, 「高祖考都體察副使白沙公墓表」·「曾伯祖左參贊淳溟公墓表」·「曾祖考郡守贈吏曹參議公墓表」·「祖考贈吏曹參判公墓表」.

4) 『白下集』 卷8, 「先考司憲府持平贈議政府左贊成三友堂府君家狀」.

5) 『白下集』 卷9, 「三祭伯氏文」. 李德壽, 『西堂集』 卷8, 「翼憲尹公神道碑銘」.

2. 官 歷

백하는 肅宗·景宗·英祖의 三朝에 나갔다. 당시 老少政爭에 의한 여러 사건으로 소론출신의 백하는 진퇴를 거듭했는데, 특히 영조년간에는 탕평의 일선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영조의 각별한 배려와 백하의 審愼한 行藏으로 정쟁의 예봉을 피하면서 문사로서의 위치를 지켜갔다.

1) 肅宗代

백하 형제는 치열한 정쟁 속에서 일생을 마친 부친으로 인하여 벼슬길에 뜻을 두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연로하신 모친의 간절한 부탁으로 과장에 나아갔다. 1705년 소과에 장원하였고, 1712년에는 菊製試에 급제하여 복시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이듬해 증광시에 文丙科로 급제하였다. 백하의 본격적인 관직생활은 1716년 세자시강원 설서로부터 시작되어 사간원정언·홍문관부수찬·수찬으로 이어졌다.

경신환국(1680)으로 南人이 대거 숙청된 뒤 남인탄압에 대한 西人내의 견해차로 비롯된 老少分黨은 숙종대를 거치면서 심화되었다. 이에 정치초년생 백하도 부친의 옛일로 인해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1716년 6월 정언 재직시에는 李翬의 兄子가 1684년 당시 정언이던 부친이 이익을 논척한 일을 거론하면서 부친을 宵人으로 몰자 백하는 부친이 직분을 따랐을 뿐이라고 밝히면서 辭職疏를 올렸다.⁶⁾ 이에 백하는 부수찬으로 옮겨졌고 1718년에는 수찬이 되었다. 그러나 다시 이익의 조카인 경기감사 李晩成이 부친의 옛일을 재론하자 백하는 誣辱을 변호하면서 또다시 사직소를 올렸다.⁷⁾ 이미 설서 재직시부터 진친현감 윤유가 모친의 병세가 악화되어 사직하려 했던 백하는 1716년 7월 부수찬 재직시 모친이 위독하자 관직을 두고 시골로 내려가기도 했는데, 이러한 일로 인하여 뒤에 江西현령으로 나가게 되어 모친을 모셔왔지만 얼마되지 않은 1719년 1월 27일에 사망했다.⁸⁾

2) 景宗代

1720년 6월 경종 즉위후 노소대립의 골은 깊어져 갔다. 마침내 1721년 노론이 경종의 無子多病을 구실로 延祔君의 王世弟책봉을 강행하고 이어 세제의 대리청정을 요구하자, 소론은 이를 규탄하고 급기야 金一鏡 등의 疏와 陸虎龍의 告變으로 노론을 대거 처단하니[辛壬士禍] 이후 조정은 소론일색이 되었다. 백하는 1721년 8월 개설된 세제시강원 사서가 되었고 이어 교리를 지냈으며 1722년에는 북평사·수찬·이조좌랑 등을 지냈다. 1723년에는 교리검문학을 지냈고 응교가 되어

6) 『肅宗實錄補闕正誤』 卷57, 42년 6월 기해. 『白下集』 卷2, 「辭正言疏」.

7) 『白下集』 卷2, 「辭修撰卞李晩成誣辱仍陳所懷疏」.

8) 『肅宗實錄補闕正誤』 卷58, 42년 7월 신미. 『白下集』 卷2, 「辭說書疏」·「省親病還朝後待罪疏」; 卷8, 「先考…三友堂府君家狀」.

사은사서장관으로 청에 갔다. 1724년에는 사헌부집의·사간원사간을 거쳐 7월에는 수원부사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가 8월 경종승하 직전에 우의정 李光佐의 천거로 실록당상관에 專任을 허락받았다.⁹⁾

이 시기에 백하는 1721년부터 한동안 麻浦의 風月亭에 임시 거처했다. 이곳은 성종의 형 月山大君 李焯(1454-1489)의 사저였고 당시 豊山人 洪萬宗(號 于海)의 소유였다.¹⁰⁾ 이 시기에도 백하는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1722년 2월 소론강경파가 老論四大臣(金昌集·李頤命·李健命·趙泰采)을 처단하려 함에 백하는 경솔히 행동하지 말라고 저지하다가 결국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자 선조들의 鄕里였던 장단으로 가버렸다. 이후 소론은 老論治罪를 놓고 모두 엄벌하라는 김일경 등의 峻少와 주모자만 처리하자는 鄭壽期·金東弼·윤순·徐命均 등의 緩少로 갈라졌다.¹¹⁾

한편 峻緩分派에 앞서 경종원년에 破朋黨을 제기했던 趙文命은 이때 세계시강원 屬僚로 동궁에 출입하던 윤순·宋寅明·趙顯命·鄭錫三·李匡德·朴文秀 등과 함께 행동하면서 淸流를 자처했다. 그들은 소론이면서도 김일경 일파를 엄중히 배척하고 兩非說을 내세워 노소의 시비를 偏論이라 배척하면서, 파봉당에 의한 蕩平說을 주장하고 이에 입각하여 世弟보호를 표방했다.¹²⁾ 때문에 그들은 준소의 논척을 받았는데 백하도 1722년 11월에는 장령 朴徵賓으로부터 시세를 틈타 신축소를 누설하여 일을 그르치려 했고 청류를 가장한 妖人으로 몰리기도 했다.¹³⁾

3) 英祖代

영조는 즉위후 소론의 李光佐·柳鳳輝·趙泰億으로 三相을 구성하는 한편 신임사화로 귀양간 閔鎮遠을 석방하여 노론진출의 계기를 마련하자, 노론은 신임사화 주역을 공격하고 被罪·被禍者の 伸冤을 요구했다. 이에 소론이 맞서 조정이 소요하자 영조는 탕평을 내세워 노소양측을 같이 처벌했다. 그러다가 1725년 1월 영조는 소론계 三司諸臣을 몰아내고 노론계로 채운 뒤 鄭滯·민진원·李觀命을 三相으로 한 노론정권을 구성하고 3월에는 신임사화를 誣獄으로 판정하고 卞晳·卞晳화자를 신원하는 乙巳處分을 단행했다. 그뒤 소론의 완강한 반발로 정쟁악화를 예견한 영조는 파봉당을 제창하며 洪致中·趙道彬 등의 緩老를 재상으로 등용했다. 이에 완로는 영조의 老少竝用의

9) 『景宗實錄』 卷15, 4년 7월 을유·8월 신사.

10) 『白下集』 卷1, 「移寓麻浦風月亭夜過長溪公子茅亭贈主人」·「風月亭次潛軒李載大開字」·李夏坤, 『頭陀草』 冊10, 「仲和將移住麻浦又用前韻贈之」·「六月十七日與鄭舜年壽期李仁老德壽尹伯修游金子直東弼尹仲和淳會于風月亭仲和方僑居亭中時積雨新霽…余詩先成諸君以次和之」·「仲和又示一詩同諸君和之」·「登風月亭舊址平臨海門落景尤奇令人意思尤覺快爽亭是月山大君家物今屬洪萬宗于海云」·「鄭令公舜年次仲和韻爲余賦一詩作此以酬其意」.

11) 『景宗實錄』 卷6, 2년 2월 무신·11월 정미. 『景宗修正實錄』 卷3, 2년 5월 정해. 『白下集』 卷2, 「辭校理兼陳所懷疏」.

12) 鄭萬祚, 「英祖代 初年の 蕩平策과 蕩平派의 活動」, 『震檀學報』 56(1983.12), pp.32-33.

13) 『景宗實錄』 卷10, 2년 11월 갑진·12월 朔임자; 卷12, 3년 4월 임신; 卷13, 3년 9월 계유. 『景宗修正實錄』 卷3, 2년 11월 갑진; 卷4, 3년 1월 갑오. 『白下集』 卷2, 「辭兼文學卞朴徵賓誣詛疏」. 신축소가 올려졌을 때 백하가 성묘하러 장단에 간 것이 일부러 피했다고 여겨져, 이에 김일경에게 사주받은 박정빈이 백하를 비방하자 백하 동료 金東弼이 김일경을 논척하는 소를 올렸고 다시 이진유가 김일경을 변론하는 소를 올리는 등 峻緩대립이 심각했다.

뜻을 받들어 竄黜된 소론 중 의견이 평온했던 宋眞明·윤순·趙翼命 등을 伸辨하고 그들의 석방과 調用을 청하는 등 탕평을 구체화하려 했다. 그러나 다수 峻老의 반대로 老少緩論을 통한 탕평책이 실효를 못거두자 1727년 영조는 차선책으로 아예 소론을 끌어들였다. 이에 노론인사는 파직되고[홍치중 勿罷], 李光佐·조태억을 영·좌상으로 李台佐·沈壽賢·윤순·李璣·서명균·吳命恒 등을 중심으로 한 소론정권이 수립되었다. 이에 삭탈된 유봉휘·趙泰壽·崔錫恒의 관작이 회복되고 귀양간 소론인사가 석방·등용된 반면 노론사대신이 다시 罪案에 드는 등 忠逆是非가 뒤바뀌었다[丁未換局]. 이로 인해 緩少와 淸流가 조정에 나갔는데 1728년 정권에서 소외된 소론일파와 남인이 음모한 李麟佐의 亂[戊申亂]이 탄로났지만 그 근본원인이 노소당론에 있었으므로 결국 탕평론자가 유리하게 되었다. 이에 그들은 1729년 노소현안인 辛壬是非의 절충안으로 己酉處分을 내리게 하고 노소완론을 설득해 갔다. 그뒤 金在魯 등의 완로가 진출하여 노소완론의 聯政형태를 이루니 1740년 庚申處分까지 雙擧互對·兩治兩解·是非折衷이란 조정책에 기초한 탕평기반이 형성되었다.¹⁴⁾

영조초년의 탕평은 특히 노론의 반대에 부딪혔고 또 영조가 상황에 따라 노소를 축출·등용하는 자의적 조치를 취해 不偏不黨을 본질로 하는 탕평론과 배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무신란 이후 영조가 점차 과당을 조정하여 왕권을 강화했고, 특히 완소계 탕평론자들이 노소강경세력을 배제하면서 정국안정을 기해 어느정도 실효를 거두었다. 그들이 바로 경종년간에 세제시강원에서 활동했던 인사들로 영조의 두터운 신임으로 즉위후 발탁되어 정사를 위임받았던 것이다.¹⁵⁾

백하는 영조 즉위후 병조참지가 되었고 이어 승지·대사성·부제학을 지냈다. 그뒤 소론이 제거된 1725년부터 삭출되었다가 정미환국으로 1727년 7월 부제학에 재용되고 이어 대사헌·대제학과 이조참판을 지냈으며 곧 이조판서가 되어서는 지경연사·양관대제학·지춘추관성군관사·세자좌부빈객을 겸했다. 특히 1728년 무신란 때에는 監護諸軍使로서 난의 발생·경과·토벌·처벌을 「討逆頒教文」으로 製進하여 奮武原從功臣에 책록되었고 그해 동지정사가 되어 부사 趙景命·서장관 權一衡과 함께 淸에 갔다. 그후 판서(형조·공조·예조)·도승지·우참찬·좌참찬·판의부금사·한성판윤·경기도관찰사 등을 지내면서 지경연사·양관대제학·실록당상관·세자좌부빈객 등을 겸했다.

이러한 백하의 잦은 轉職은 영조의 정치적 배려에 기인한 듯하며 백하 또한 비방과 탄핵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사직하려 한 태도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번번히 不許되거나 옮겨졌는데 그의 문집에 실린 60여편의 辭職·陳卞하는 疏가 대부분 政移와 관련된 것에서 이해된다. 백하는 조정에서 잠시도 편안하지 못했던 듯, 1724년 10월 병조참지 때에는 실록당상관 임명에 잡음이 나자 사직소를 올렸지만 결국 11월 임명되었고,¹⁶⁾ 1727년에는 『肅廟寶鑑』과 『景宗實錄補遺』의 편찬을 맡아 노소시비를 사실대로 신자 노론 金有慶·俞最基 등으로부터 追改요구와 비

14) 鄭萬祚, 앞 논문, pp.35-64.

15) 崔完基, 「英祖代 蕩平策의 贊反論 檢討」, 『震檀學報』 56(1983.12), pp.77-94.

16) 『英祖實錄』 卷1, 즉위년 10월 정유·11월 신해. 『白下集』 卷3 「辭兵曹參知再疏」.

방을 받았으며,¹⁷⁾ 1729년 귀국시에는 淸皇에게 皇華故事를 써주어 筆·墨·書畫帖 등의 幣贈을 받았다 하여 末藝를 드러냈다는 논적을 노론 權憐으로부터 받았고,¹⁸⁾ 1734년 양관대제학 재임시에는 시험관리에 엄격하지 않았다고 관작을 떨꾸라는 土論을 받았으며,¹⁹⁾ 1736년에는 장령 李台徵으로부터 기유처분에 대해 三變之說을 내세워 불충했다 하여 논척받기도 했다.²⁰⁾ 또 1732년에는 경종계비 宣懿王后의 大喪에 불참했다 하여 삭출되었고 1735년에는 三違召로 파직되었으며 1736년에는 陵幸수행의 명을 어기고 도중에 投疏하며 돌아갔다 하여 파직되기도 했다.²¹⁾ 그후 한성판윤·평안도관찰사 등에 누차 임명되나 한동안 출사하지 않았다. 백하는 사직하거나 파직될 때마다 장단 백학산 아래의 來泉으로 돌아가 康濟窩에서 노년을 보냈다.²²⁾

그러던 중 1739년 경기도관찰사 재직 이전부터 깊어진 병으로 관직을 떠나려 했던 백하는 1740년 초겨울 과거 세번이나 사양했던 평안도관찰사의 명이 내려지자 더이상 거역할 수 없어 병중의 몸을 이끌고 임지로 떠났고,²³⁾ 결국 이듬해 3월 24일 관내를 순찰하던 중 압록강변 碧潼의 行館에서 객사하였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 임지로 떠나는 길에 장단 盤龍山에 있는 선친의 묘소에 들러 마지막 이별을 고했으니,²⁴⁾ 평소 利欲이 없고 화평한 마음과 단아한 모습을 지켰던 백하의 靈柩는 그해 5월 28일 부친의 묘 왼쪽으로 되돌아왔다. 영조는 백하의 대상에 임하여 1743년 2월 27일 예조좌랑을 보내 祭文을 전했고 정조는 1796년 3월 15일 예조좌랑 등을 보내 致祭하면서 重臣의 공적을 기리었다.²⁵⁾

3. 學 問

백하의 가문은 동서분당 이후 서인으로서 成渾·李珣를 위시한 기호학파의 학맥을 이었고, 노소분당 이후로는 소론으로서 金長生 이후 宋時烈 등의 노론학맥에 반해 尹拯·朴世堂 등의 소론학맥을 따랐다. 당시 정치사건으로 비화된 성혼의 文廟祭享을 둘러싼 남인과 서인의 분쟁, 송시열

17) 『英祖實錄』 卷13, 3년 9월 갑술·10월 경술; 卷14, 3년 12월 신해; 卷15, 4년 2월 무신. 『白下集』 卷3, 「筵席被推後待罪兼卞金有慶疏斥疏」·「辭職仍請肅廟寶鑑疏」; 卷4, 「金有慶疏誣後待卞疏」.

18) 『英祖實錄』 卷22, 5년 4월 갑진. 『白下集』 卷4, 「卞朴來羽權憐疏斥疏」·「卞權憐崔致重疏斥仍辭兼帶疏」.

19) 『英祖實錄』 卷39, 10년 9월 갑술. 『白下集』 卷4, 「辭再典文衡疏」.

20) 『英祖實錄』 卷41, 12년 5월 경인; 권42, 12년 8월 병자.

21) 『英祖實錄』 卷32, 8년 9월 병신. 同 卷40, 11년 6월 경신. 同 卷42, 12년 9월 경인.

22) 백하가 이곳에 집지은 것은 경종승하(1724. 8. 25) 뒤이다(『白下集』 卷1, 「結屋白鶴山下」, “白鶴山前屋 殘年自在心 涼眠巖樹倚 孤往岫雲尋 世遠難求道 人亡不鼓琴 茫茫宇宙內 誰復賞吾音”이란 시가 「景宗大王挽詞 三首」 바로 뒤에 실림)/ 來泉은 백하가 오면 말랐던 샘이 다시 솟았다 해서 붙여졌다(『白下集』 卷1, 「歸白下」, “舊隱衡門倚白霞 來泉水活客還家 城西小院猶秋夢 種菊三年不見花”)/ 강제와라는 당호는 장조가 李得運과 외종조카 李錫禧의 제문에 보인다(『白下集』 附錄, 「祭文」).

23) 『白下集』 卷4 「辭平安監司疏」; 卷5 「辭西伯疏」·「辭四叨箕伯疏」. 『英祖實錄』 卷40, 11년 8월 임오; 卷43, 13년 4월 신유; 卷52, 16년 11월 기축.

24) 『白下集』 卷5, 「請歷省先墓疏」.

25) 『白下集』 附錄, 「致祭文」 吳逢采 製進, 李勉兢 製進. 『正祖實錄』 卷44, 20년 3월 정미朔.

과 윤증의 반목[懷尼之事], 박세당의 『思辨錄』과 俞棨의 『家禮源流』를 둘러싼 노소갈등 등에서 그의 가문이 서인·소론의 입장에 섰던 점에서도 이해된다.

따라서 백하가 가학을 따랐으리라 여겨지면서도 그의 학문에서 霞谷 鄭齊斗(1649-1736)를 통한 陽明學에 대한 이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백하의 선조 윤두수가 조선최초로 양명학을 접했던 南彦經의 문인이었고²⁶⁾ 백하의 외고조 李晬光이 양명학을 통해 성리학의 새 방향을 탐색했으며²⁷⁾ 戚兄으로 백하에게 학문적 영향을 준 崔昌대가 양명학을 이해했던 崔鳴吉의 증손이고 백하가문과 친밀했던 崔錫鼎의 아들였다.²⁸⁾ 이런 연유로 백하가 양명학에 접할 수 있었고 더우기 부친의 친우 鄭齊泰(1652-98)의 사위가 되면서 그의 형인 정제두에게 나갈 수 있었다.²⁹⁾

조선의 양명학은 중국에서 전래된 이래 남언경·李瑤·張維·최명길 등에 의해 이해됐으나 17세기 王陽明의 주자학을 비판했고 양명학이 禪味를 띠었다 하여 성리학자로부터 배척되었기 때문이며, 또 학문의 자유로운 토론을 지향하는 재야사림과 주자학을 官學으로 정통화하려는 親政세력 사이의 알력 때문였다. 그래서 이황의 후학이던 윤근수조차 朱子가 陸象山을 禪者라 했고 왕양명이 주자를 楊朱·墨翟에 비교했으므로 문묘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장유에게 양명학을 버리고 정주학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노소분당 이후 노론과 남인의 주자학 추종과 달리 소론의 양명학 숭상경향은 정치와 결부되어 반목을 이루었고, 더우기 노론이 국가권력을 주도하자 주자는 “老論의 朱子”라 할 정도로 추종되고 왕양명의 三大條目은 송시열의 후예인 韓元震 등에 의해 호되게 비판되었던 것이다.³⁰⁾

백하는 「하곡 鄭선생을 제사지내는 글」에서

오호! 이 마음을 간직하여 온갖 이치를 밝히고 이 마음을 실하게 하여 온갖 일에 응함은 바로 선생의 학문이 밝게 통하고 사려깊게 차 있음이니, 마침내 평탄함에 이르러 편안하게 실천하셨다. 그래서 그 처신함에 묵묵히 이루며 그 本然의 天을 즐기되 박식한 말씨나 뛰어난 문장으로 남에게 뽐내지 않았고, 그 나감에 예로 행하며 世의 節目을 받들되 도덕이나 賓師로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실사 밖으로 힘쓰는 자가 의혹하고 高淡을 좋아하는 자가 의심해도 선생께서 자신하며 후회하지 않은 것은 남이 알아주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孔子·顔子가 나의 스승이라 하셨다... 오호! 소자는 어리석고 못나 白圭의 三復*을 하지 못했는데도 일찍부터 南容과 같은 후대를 입고 문하에 드나든 지 40여년이다. 비록 그 높으심을 쳐다보고 견고하심을 뚫을 수는 없었지만, 그 한 돌로 헤아려보면 선생의 행동거지는 대략 명현의 가르침 안에 있었다. 선생의 風旨에 의지하지 않고 어느 세월에 이 세상을 다 살피겠는가. 그 어찌 덮어버리겠는가. 오호! 唐虞의 大法가 연멸하고 祖宗의 六典이 황폐되었다. 선생이 계실 때는 먼 옛날의 법도가 쉽게 기술되

26) 尹南漢, 『朝鮮時代の 陽明學 研究』(集文堂,1982), p.153.

27) 劉明鍾, 『韓國의 陽明學』(同和出版公社,1983), pp.67-76.

28) 李能和, 「朝鮮儒界之陽明學派」, 『靑丘學報』 25(靑丘學會,1936), pp.121-124; 劉明鍾, 위 책, pp.89-98.

29) 『白下集』 卷7, 「廣州府尹鄭齊泰墓誌銘」. 정제태는 성혼·이이의 문묘제향에 적극 나섰고 懷尼之事에서 윤증 처벌을 외롭게 반대했던 인물이다.

30) 李能和, 앞 논문, pp.114-124; 金古煥, 『韓國陽明學研究』(一志社,1981), pp.24-43.

어 행동에 옮겨졌으나 선생이 돌아가시자 한갓 세상운수가 쇠하고 학문도 끊겨 이어지지 않는다. 이는 실로 온 국민의 福祿이 없음이라. 어찌 소자 홀로 사사로이 통탄할 뿐이라. 오호 슬프다!

(『白下集』 卷9, 「祭霞谷鄭先生齊斗文」)

* 공자의 제자 南容이 하루 세번씩 白圭[회고 맑은 옥]같은 詩를 읊었다는 고사로 말을 삼가한다는 뜻(『論語』 先進篇, “南容三復白圭 孔子以其兄之子妻之”).

라고 하였다. “存此心而精萬理요 實此心而應萬事는” 바로 하곡의 心卽理를 일컫는 것이요 “樂其本然之天”이란 천연의 良知를 즐겼다는 말이니, 이것은 바로 致良知의 心學이 하곡의 학문임을 지적한 것이다. “비록 務外者惑焉하고 好高者疑焉이라도” 하곡이 良知學을 믿어 후회하지 않았으며 그의 宗旨가 공자·안자에 있었음을 일컫는 것이다.³¹⁾

백하는 자신이 하곡의 문인임을 자술하면서 그의 학문이 계승되지 못함을 안타까워 하였다. 당시 하곡의 학문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하곡이 양명학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賓師의 자리를 맡길 수 없다고 한 지평 李廷樸의 啓에 대해 백하는

선생의 德은 無我에 이르렀는데 8월에 정막이 출사를 그치라는 啓를 올렸습니다. 선생의 성품은 너그럽고 각박하지 않아 남의 과실을 말한 적이 없으며 옛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비록 雅言*과 『詩』·『禮』를 믿음으로 삼고 朱子를 따랐지만, 諸家의 설에 있어서는 선생 역시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했을 뿐 愛憎하거나 扶抑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양명을 배척하는 자들은 아직 그 설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문득 이단으로 여겨 금지하며 말도 못하게 합니다. 선생의 뜻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께서) 이르시길 “저들이야말로 공자를 배우는 자가 아니다. 진실로 취할 만 하면 취하고 취하지 않을 만 하면 취하지 않는 것이니 오직 나의 헤아림에 따를 뿐이다. 어찌 앞뒤를 묻지도 않고 세태에 따라 부화뇌동한단 말인가” 하였습니다. 주자도 陸象山에 대해 좋은 점이 있다고 칭하며 자신도 가릴 수 없다고 했으니 대개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혹 선생의 뜻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를 편벽하다 하고 불확실하게 新建學이라 돌려버리는 자가 있는데, 이 또한 妄人일 뿐입이니 어찌 선생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承政院日記』 冊621, 영조 2년 7월 17일; 鄭齊斗, 『霞谷集』, 「年譜」 英宗 2년 7월)

* 공자가 평상시 한 말(『論語』 述而篇, “子所雅言 詩書執禮 皆雅言也”).

라고 陳卞하였다. 이 글은 「하곡년보」 중에 양명설로 인해 하곡이 눈치받은 유일한 기록으로 하곡 학문에 대한 백하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곡은 양명학을 연구하면서도 이를 주자학의 상대적 입장에서 보지 않고 그 연계성 위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려 했다. 그는 簡易性和 實體受用に 근간한 양명학을 통해 유학의 본질을 체득하려 했으므로 백하의 언급은 하곡학문의 요체를 바로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백하가 양명학을 어떻게 수용했는가를 실증하기 어려우며 하곡의 문인들이 師學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백하가 하곡의 아들 鄭厚一의 주관 아래 동료문인

31) 劉明鍾, 앞 책, pp.140-141.

沈鎔·李震炳과 함께 『霞谷集』의 초기편집을 맡았다든가 하곡이 왕에게 건의한 수많은 獻議에 백하가 적극 동참했음을 보면 백하가 하곡학문에 敬服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³²⁾ 또한 백하가 하곡에게 보낸 서신에서 時政에 대한 의견과 出仕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것도³³⁾ 누차 관직에 제수 되었으면서도 출사하지 않고 학문에 전념한 스승의 德行을 흠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같이 백하는 주자성리학의 일변도 속에서도 하곡을 통해 양명학을 이해하면서 학문적 편협성에서 벗어나 사고의 유연성을 지닐 수 있었고, 그래서 극렬했던 노소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삼대의 조정에 설 수 있는 철학을 터득했던 것이다. 백하가 1718년 가을에 지은 글에 사고의 일단이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에는 인조·명종 이전에 비록 士禍가 있었지만 능히 선비를 등용하여 實效가 있었다. 따라서 조정에 선 자는 학문이 없음을 부끄러워 했고 설사 과거로 평범히 나간 사람이라도 모두 경술과 학행이 있었으며 습관적으로 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위에 있는 자가 務實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穆陵(선조) 이후로는 비록 기묘·을사사화와 같은 大獄事가 없었고 文成(이이)·文簡(성혼)선생 이후 여러 선비가 현용되고 존중되어 역대에 비할 바 아니었지만 끝내 선비를 기용하는 실효가 없었으니, 참으로 위에 있는 자가 用文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목릉이 아무개 일당을 끌어들이려 했음은 역대로 거의 없던 후대였으며 그 기용한 실상을 봐도 볼 만한 게 없다.… 이후 산림의 선비가 비록 지위가 卿相에 이르러도 위아래가 서로 속이고 글 아닌 것이 날로 성행하며 허위가 날로 심해졌다. 고담준론을 마치 大義를 세우고 至治[이상정치]를 닦은 것처럼 여기니 實見·實得으로 세상을 경륜할 만한 자가 없었다. 심지어 지금에는 겨우 黨禍를 부추기는 꼭두각시가 될 뿐이다. 과거로 평범히 나간 사람도 남을 표절하는데 그치고 實學에 유의하려 하지 않으니 꾸밈이 횡행하고 명성만을 건지려 한다. 심히 가소로우니 文의 폐단이다. 亡國禍家가 전쟁보다 심하니 진실로 위아래가 삼가 고치고 實心으로 實政을 행하지 않으면, 불탄 뒤에 구하고 빠진 뒤에 건지는 것처럼 끝내 위협하고 망하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오호 슬프다!… (『白下集』 卷11, 「雜識」 8편 중 제1편)

백하는 위에 있는 자가 務實·實見·實得이라는 實學의 본지를 깨닫지 못하고 타락해 버렸음을 지적하면서 그 근본원인이 바로 黨禍에 있음을 개탄했다. 여기서 실학이란 務實躬行의 실천적 학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文과 實의 일치 즉 知行合一의 그것이며 당시 양명학을 이해한 사람들이 자신의 학문을 표현한 말이었던 것이다.

4. 交 遊

백하와 교류한 인사는 당시의 정치상황으로 인해 소론계가 대부분이다. 형제친척을 위시하여 학연이나 지연에 따른 교류도 있지만 특히 백하가 탕평의 입장에 서면서 조정에서 진퇴를 같이했던 인사들과는 하나의 교류범위를 이루었다.

32) 尹南漢, 앞 책, pp.231-354.

33) 『白下集』 卷12, 「上霞谷先生」(1716. 1·1718. 12·1722. 3·1735. 8).

백하와 가장 친밀했던 사람은 의가로 삼중형인 澹軒 李夏坤(1677-1724, 慶州人, 字 載大)일 것이다. 그는 평생 출사하지 않고 선비로서의 풍격을 지키면서 문예에도 깊은 식견을 지녔던 인물이다. 백하는 그를 친우처럼 從遊했는데 그의 고종사촌 崔昌大가 백하의 戚兄였고 그의 부친 李寅燁(1656-1710)이 백하장인 鄭齊泰의 친우였기에 더욱 深緣을 맺은 듯하다. 이하곤이 고향 鎭川에 내려갔을 때(1710-18) 尹淳가 진천현감으로 재직했는데, 특히 1716년 7월 모친의 병을 살피러 내려간 차에 만났고 9월에 다시 내려와 그의 사촌 李岱坤과 함께 속리산·화양동을 유람했으며, 다음해 봄에 다시 내려와 윤유·金興慶(1677-1750)과 함께 頭陀山 靈水庵을 비롯한 명소를 유람하는 등 서로의 情懷를 깊게 나누었다.³⁴⁾ 또 그가 말년에 진천으로 다시 내려갔을 때(1723-24)에도 백하는 그의 곁으로 거처를 옮기려 했으나 1724년 4월 이하곤의 病死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³⁵⁾ 이런 인연으로 백하는 이하곤의 문집초고를 정리·필사한 듯하며(插圖 1)³⁶⁾ 그의 아우 李明坤(1685-1750)과도 교류했고 그를 통해 당대의 名詩였던 李秉淵(1675-1735)과도 교류했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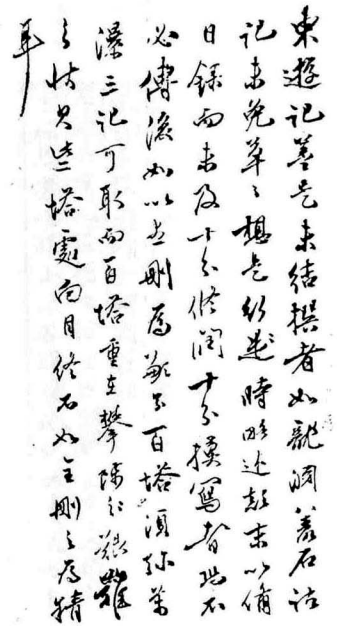


插圖 1. 尹淳, <評東遊記>, 紙本墨書 『頭陀草』 冊13 말미, 국립중앙도서관.

다음으로 竹湖 李廷濟(1670-1737, 富平人, 字 仲協)는 약관에 알게 된 사람으로서 그의 부친인 李世維(1646-1711)가 1709년 장단부사로 부임하면서 더욱 친밀해졌고 그뒤 이세유가 임지에서 병사하자 백하에게 부친의 행장을 부탁하기도 했으며 조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西堂 李德壽(1673-1744, 全義人, 字 仁老)는 朴世堂의 문인으로 백하와 함께 1713년 10월의 증광시 同及한 동료로서 평생지기로 교류했으며 사돈지간의 인연을 맺었다. 또 조정에서 입장을 같이했던 연상자로 慶州人 李台佐(1660-1739)·延日人 鄭壽期(1664-1752), 연배가 비슷한 사람으로 尙州人 金東弼(1678-1737)·達城人 徐命均(1680-1745), 연하자로 昌寧人 曹命教(1687-1753)·東萊人 鄭錫三

34) 속리산·화양동 유람시의 次韻詩로는 『白下集』 卷1, 「新峙(丙申九月自常山縣衙約澹軒李載大同入俗離山李生岱坤從焉)」·「山中九日」·「次李載大韻」·「清涼窟又次李載大韻」·「上獅子」·「示李載大」·「鎭衙偶成」이 있고 『頭陀草』 冊6에 20여수가 있다/ 李夏坤, 『頭陀草』 冊7, 「同伯修仲和子有諸君設泡於靈水庵子有寄示一律和韻答之」·「雨中偕君鉞赴縣齋同宿之約又疊微字」.

35) 『頭陀草』 冊18, 「與尹仲和淳書」, 『白下集』 卷9, 「祭澹軒李載大夏坤文」.

36) 국립중앙도서관소장의 『頭陀草』 18冊(冊1-11은 詩, 冊12-18은 文) 필사본은 해서와 행서로 쓰였는데 백하서풍이다. 특히 冊6·7이 대부분 행서인데 그중 白下詩를 차운한 이하곤詩에 이어 백하의 原韻이 실려있고(冊6 41b-42a의 2수), 冊13 말미에 貼附된 행서(「東遊記 善是未結撰者 如龍淵叢石諸記 未免草草 想是行時 略述頭末以備日錄 而未及十分修潤十分摸寫者 恐不必傳後 如以盡刪爲歎則 百塔須彌萬瀑三記可取 而百塔重在攀陟艱難之狀 貝些塔處向日終 不如金剛之爲精耳」)가 여지없는 백하글씨여서 그렇게 추정했다.

37) 『白下集』 卷1 「主倅李一源適不在官悵然留詩」. 이하곤에 대해서는 李仙玉, 「澹軒 李夏坤의 繪畫觀」,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II(一志社, 1987), pp.49-64 참조.

(1690-1752) 등이 있으며, 豊壤人 趙翼命·趙景命(1674-1725)·趙文命(1680-1732)·趙顯命(1690-1752), 礪山人 宋成明(1674-1739)·宋眞明(1688-1738)·宋寅明(1689-1746), 全州人 李眞望(1672-1737)·李眞淳(1678-1738)·李眞洙(1684-1732) 등의 형제사촌이 백하와 깊이 교류했다.³⁸⁾

이들의 교류는 후대로 이어져 이태좌의 아들李宗城(1692-1759)은 장단출신으로 조정에서 백하와 함께 했고, 정수기의 아들 鄭羽良(1692-1754)·鄭羣良(1706-62) 형제는 백하글씨를 따랐으며, 김동필의 둘째아들 金光遂(1696-1770)는 백하제자 李匡師(1705-77)와 깊게 사귀었고, 서명균의 아들 徐懋修(1716-?)는 백하의 제자가 되고 이진순의 사위가 되었으며, 이진망의 큰아들 李匡德(1690-1748)은 조정에서 백하를 따랐고 조정명의 사위가 되었으며, 이진망의 둘째아들 李匡文은 윤유의 둘째사위가 되었다. 이밖에 백하가 소시적에 따랐던 全州人 李敬躋(掌樂院僉正), 1716년 사간원정언으로 같이 나간 靑松人 沈尙鼎(1679-1721) 등이 있다.³⁹⁾

한편 학문으로 교류했던 인사로는 戚兄인 昆侖 崔昌大(1669-1720)가 있다. 그는 문장에 뛰어나고 경서에 밝아 백하에게 학문적으로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의 증조 崔鳴吉과 부친 崔錫鼎이 모두 경학에 밝은 학자였다.⁴⁰⁾ 또 정제두 문하의 동료문인였던 靑松人 沈鎭(?-1755)·錦山人 李震炳(1679-1756) 등과 정제두의 아들 鄭厚一(1671-1741)과 처남 鄭順一 등이 있다. 그중 심육은 부친과 친했던 沈濡(1640-84)의 손자였고 백하가 따랐던 沈壽賢(1663-1736)의 아들로 이하곤과 더불어 우의를 나누었다. 그런 인연으로 백하는 1715년 여름 당시 삼척부사였던 그의 큰아버지 沈齊賢(?-1715)과 양양부사였던 심수현과 함께 금강산을 여행하기도 했다.⁴¹⁾

백하와 교류한 인사들은 모두 筆翰에 뛰어났는데, 그중에서도 서명균은 쯤·唐서법에 뛰어나 많은 비명을 썼고, 이진수·이진순 형제는 백하와 이름을 같이 할 만큼 글씨에 뛰어났으며, 김동필은 서화를 두루 잘했다. 또 이하곤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회화에 대한 넓은 식견을 가졌으며, 이덕수·이중성과 조명교는 백하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 많은 비갈명을撰하고 篆했다.

II. 白下의 中國書法 인식

백하가 서예에 관해 쓴 글은 『白下集』에 실린 몇 편의 題跋이 전할 뿐이다.⁴²⁾ 그중 自庵 金絿(1488-1534)의 서첩 뒤에 적은 글은 역대서법에 대한 백하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38) 『白下集』 卷8, 「承旨贈吏曹判書李公行狀」; 卷9, 「祭李判書廷濟文」; 附錄, 李德壽의 「祭白下文」; 卷9, 「祭奉朝賀李公台佐文」·「祭趙相國文命文」·「祭金判書東弼文」 및 卷1에 이들과 唱酬한 백하의 시가 다수 실려있다.

39) 『白下集』 卷7, 「完山李君墓碣銘」; 卷10, 「夢悟遺稿序」.

40) 『白下集』 卷1, 「崔左相錫恒挽 二首」; 卷9, 「祭副提學崔公昌大文」.

41) 『白下集』 卷9, 「祭桃溪沈三陟齊賢文」; 卷10, 「此君亭記」. 백하는 崔錫鼎이 지은 沈濡의 墓碣銘을 쓰기도 했다.

42) 『백하집』 12권4책은 1926년경 종6세손인 尹容求의 편집으로 간행되었다. 그중 권10에 「題書狀權信卿一衡元明書帖後」·「題信卿所購趙子昂書後」·「題箕城妓詩帖後」·「書伊聖所藏自庵帖後」의 제발이 있다. 한편 『權域書畫徵』 尹淳條에 白下書帖 인용문(“書評曰…”)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61세 이후로 되어 있으나 말미의 기년(“癸丑”:1713·1773)이 맞지 않는다.

글씨는 짚을 귀하게 여기며 짚은 王羲之를 최고로 여기니, 글씨를 쓰려는 사람이 王에서 취하지 않는다면 어찌 글씨이겠는가. 그러나 唐의 虞世南·褚遂良은 다만 그 요점을 直造했을 뿐이며, 顔眞卿·柳公權·蘇軾·蔡襄과 같은 이는 비록 붓으로 세상을 울렸지만 王氏의 본의에 대한 그들의 시각은 마치 風·雅*가 변한 것과 같다. 그밖에 이런 재질은 세상과 함께 떨어지고 서법은 시대와 함께 침몰하니 王의 필의가 세상에 끊어진 지 오래이다. 비록 旁派·別宗이 다수 나와 뒤에 유행했지만 그들이 전하지 않은 서법을 얻은 사람은 드물었다. 그래서 明의 諸家가 많은 종이를 물들였으나 너무 비루해서 살피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우리 동쪽에 대단한 서가가 나와 왕씨의 맥락을 이은 자 두 사람 있으니, 金生이 앞에서 창도하고 自庵 金公이 뒤에서 계승하여 晉唐 이후 수천백년을 아득히 찾고 깨달아 王의 門路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明인이 공의 글씨를 보고 右軍(왕희지)에 혹사하다 했던 것이다. 오호! 공이 글씨에 쏟은 마음은 근심했지만 요즘 붓을 다룬다는 사람들은 비근한 모양에는 대충 익숙하지만 高遠한 경지에서 노닐 만한 능력이 적은데도, 도리어 왕씨가 본받을 만하지 않다 하고 공의 글씨가 귀하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으니 그 미혹함을 죄다 드러낸다. 나는 젊어서부터 글씨에 癖이 있었는데, 逸少(왕희지)의 필법을 매우 즐겼으며 공의 글씨를 近師로 여겨 무릇 공의 한 조각 목적이라도 널리 찾고 두루 열람했다. 이제 우리 宗家 伊聖에게서 본 이 첩은 끝에 月汀先生(윤근수)의 手跋과 宋相國(송시열)의 題後가 있다. 아! 공의 글씨만도 기이하고 사랑스러운데 하물며 우리 월정공의 발까지 곱했는가. 마침내 소매에 넣고 돌아와 삼가 완상하니 실물같은 획은 鍊鍊을 늘어놓은 듯 구름이 흘러가는 듯 억지로 마음두고 쓴 구석이 없다. 비록 왕씨의 필첩 사이에선 贋作에 속하겠지만 분간하기 어려우니 더욱 기이하지 않은가. 아! 세상에서 어찌 내 마음처럼 공의 글씨를 아끼는 사람이 있을까. 만일 그 글씨를 아끼게 하여 모두가 나처럼 필법을 취하는 바를 안다면, 永和[왕희지 在世인 東晉 穆帝의 연호]의 盛時에 가까워지지 않겠는가.

옛날 孔子의 문인이 각각 그 道·體의 一段을 얻었지만 끝내 楊朱·墨翟의 무리에 이르렀고 심지어 李斯는 그 책을 불사렸으니, 긴긴 세월동안 斯道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濂洛諸夫子[濂溪의 주돈이, 洛陽의 정호·정이]가 나와 확연히 이를 다시 밝혔으니, 이 또한 斯文이 드러나고 어두워지는 시기란 것인가. 그렇다면 저 顔·柳·蘇·蔡가 왕법을 변질시킨 것과 방과·별종이 뒤에 유행한 것은 공자 문하에서 楊·墨이 나온 것과 같은 類이며, 요즘 세상에서 왕씨가 배울 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李斯가 책을 불사른 것과 다름없는 서가의 불행이다. 즉 김생과 자암공이 오래 끊기어 전해지지 않은 서법을 얻어낸 功은 엄락 제부자가 斯道를 창도하여 밝힌 것에 뒤지지 않으니, 나처럼 공의 글씨를 아끼는 사람 역시 周公과 仲尼(공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과 같은 流인가.

내가 항상 말은 하면서도 글로 쓰지 않은 것은 감히 쓸데없이 논설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月汀公은 단지 자암공의 始末만을 상술했고 宋相公 역시 이 서첩의 失得을 익살스럽게 말했을 뿐 필법에 대해선 모두 定論이 없다. 그래서 평생 사모하고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참람하다는 책망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망령스럽게 언급했다. 무릇 글씨에 박식한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죽히 살피 죄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白下集』 卷10, 雜識「書伊聖所藏自庵帖後」)⁴³⁾

* 『詩經』 중에서 諸侯의 민요인 風(正風·變風)과 天子의 아정한 시 雅(大雅·小雅)를 말함.

백하는 서법의 이상을 王羲之에 두면서 初唐의 우세남·저수량이 왕법의 요점을 전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안진경과 그를 따른 유공권 그리고 이들을 찬양하고 배운 宋 소식

43) 윤근수와 송시열의 題跋은 尹根壽, 『月汀集』 卷4, 「題自庵詩帖」; 金絳, 『自庵集』 附錄, 「題自庵詩帖」과 『宋子大全』 卷149, 「自庵書帖跋」 참조.

· 채양에 대해서는 왕법의 본의를 변질시켰다고 보았으며, 이후 明代 서예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에 백하는 왕법의 전통을 우리나라 서가에서 찾아 김생과 김구를 높게 평가했는데, 그런 인식은 조선시대 서예의 흐름 속에 잘 나타난다. 이미 16세기 이후로 여말선초에 풍미하던 松雪體로부터 왕희지체를 典範으로 한 복고풍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에 따라 많은 서가가 이를 표방하며 자신의 글씨를 이루었고 또 자기문화에 대한 주체적 인식도 제고되면서 우리나라 필적에서 왕희지체 진수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백하가 조선시대 왕체보급의 선구자로서 김구를 거론하여 近師로 삼았던 것은 백하가문인 김구를 포함한 己卯名賢의 학맥을 이었다는 점에서도 이해된다. 백하의 선조가 조광조와 그 후학인 성혼의 문인이거나 교류가 깊었으며 尹根壽가 바로 왕희지체의 명가였던 것이다.⁴⁴⁾ 그런데 기묘명현이 요순시대의 도리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듯이 그들은 文은 漢을 본받고 書는 晉을 본받으며 詩는 唐을 배우고 人物은 宋의 諸儒를 모범으로 삼았으니⁴⁵⁾ 이런 文藝성향은 그들의 복고적 이념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상술했듯이 백하가 中唐 이후의 서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지만 그러면서도 김생·김구처럼 왕희지를 깊이 이해했던 후대의 서가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국의 서가로서 宋 米芾(1051-1107)과 元 趙孟頫(1254-1322)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백하의 제자 李匡師는 『書訣』에서

相國 鄭子輝(정우량)는 내 글씨를 좋아했는데 한번은 내게 말하시길 “자네가 매번 서법은 下土에게서 비웃음을 받아야 높은 것이라고 했지.* 내가 전에 백하를 뵈고 이 말에 대해 여쭙었더니 ‘그렇지 않네, 좋은 글씨는 미인과 같아 온세상이 다 좋아하고 마침내 國色이 되지’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야”라고 하셨다. (이에) 나는 “이것은 제가 들은 바가 아닙니다. 글씨 역시 道인데 어찌 女色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만일 周나라 孔子가 堂 위에서 道를 강설하는데 배우들이 문밖에서 연극을 한다면 모퉁이로 달려가 도를 듣는 사람은 거의 드물지만 연극을 보는 사람은 성을 기울게 할 정도이니, 글씨의 雅·俗 역시 이와 같습니다”라고 응답했다. 그뒤 내가 백하를 뵈었는데 백하께서 책상 위에 元章(미불)의 글씨를 내미시면서 “옛사람은 반드시 짜임을 高逸하게 하여 속된 눈에는 들지 않았으니 이 노련한 글씨 또한 한 글자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다. 대개 書道는 속된 눈에 어긋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데, 나 역시 이 방도를 알며 才分 역시 이를 할 만하다. 단지 우리나라 사람은 매우 고루하여 필법을 모르고 반드시 자태를 극히 예쁘게 써야만 비로소 좋아한다. 그 때문에 부득이 세속에 따라 보기좋은 글자를 쓰게 된다.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성취한 바가 마땅히 이 정도에 그치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鄭公이 들은 바와는 서로 다르지만 이는 올바른 논의이다. 다만 鄭公에게는 아무렇게나 응대하셨을 뿐이다. (李匡師, 『書訣』 後編 上)

* 老子 『道德經』, “上土聞道 勤而行之 中土聞道 若存若亡 下土聞道 則大笑之 不笑不足以爲道”의 뜻을 글씨에 비유한 말.

44) 『權域書畫徵』, 尹根壽條. 특히 『海東名臣錄』 인용문 참조.

45) 尹根壽, 『月汀漫筆』(『大東野乘』 卷57), “己卯名賢 一時之論以爲 文則法漢 書則法晉 詩則學唐 人物則當以宋諸儒爲準 如金元沖(淨)金大柔(絳)奇子敬(遵)輩是已.” 尹根壽, 『月汀集』 卷4, 『題自庵詩帖』, “自庵金公…己卯正人…諸賢之論 以爲文則漢 詩則唐 眞草則晉 人物則宋 以是視法 而爲終身勉焉.”

라고 하여 백하가 미불의 글씨를 高逸한 글씨로 평가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앞서 백하가 王法의 본의를 변질시킨 서가로서 顏·柳·蘇·蔡를 거론하면서도 미불을 거론하지 않았던 사연을 짐작할 만 하다.

미불은 처음에 안진경·저수량을 배웠으나 그들의 글씨가 왕희지의 <蘭亭敍>에서 나왔음을 깨달은 뒤 魏晉古法을 바탕으로 平淡한 서체로 돌아갔고 天性·自然 등을 강조하는 등 인위적인 글씨를 배격했다. 이에 그는 위진 이래로 서법은 점차 쇠퇴하여 마침내 안진경·유공권에서 “醜怪惡札의 祖”가 되었고 그로부터 고법은 사라졌다고 보았다.⁴⁶⁾ 이에 반해 소식은 처음에 왕희지를 배웠으나 뒤에는 안진경과 五代的 楊凝式이 晉人의 超逸한 氣格을 이었다고 하면서 그들을 사숙했고, 채양은 二王(왕희지·왕현지)에서 출발하여 안진경을 깊이 학습했으며, 또 宋의 명서가 황정견은 二王의 逸氣는 初唐四大家(구양순·우세남·저수량·薛稷)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오직 안진경·양응식에게서 그 유풍이 보인다고 여겨 안진경을 익혔다.⁴⁷⁾ 물론 그들이 晉人의 운치를 지향하면서도 서가의 풍격과 創新을 중시한 점에서는 모두 같지만, 미불이 顏을 비판하면서 二王으로 돌아갔음에 반해 蘇·蔡·黃이 顏을 깊이 사숙했던 점에서 서로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晉·唐 서법에 대한 백하의 인식은 미불과 유사하며 그래서 후술하겠지만 백하가 미불의 서풍을 크게 수용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唐 張旭·懷素 이래 안진경·양응식·소식·황정견으로 이어지는 혁신적 성향의 서가와 달리 二王書法을 깊이 이해한 서가로서 미불·조맹부가 누누히 지칭되었던 것이다. 백하는 1728년 동지정사로 淸에 갔을 때 서장관으로 동행한 權一衡(1700-?, 字 信卿)이 사온 조맹부의 書卷 뒤에 적기를

앞은 子昂이 쓴 柳河東(유종원)의 「馬退山記」와 李靑蓮(이백)의 「橫江詞」三絶로 信卿이 상당한 돈을 들여 연경시장의 胡商에게서 구입한 것이다. 자세히 보니 비록 짜임과 획법에 드문드문 세련되지 않은게 있어 젊었을 때 쓴 듯하나 자양임은 분명하다. 아! 자양의 서품은 君謨(채양)·元章 이후 일인자이며 하물며 또 지금과의 거리가 사백년이나 진적의 찬란함은 어제 쓴 듯하니, 바로 이 서권이다. 어찌 좋은 것 뿐이라마는 천하의 누추하거나 촌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다. 안목있는 사람이 수습하여 감추었으나 교활한 거간꾼에게 헐값에 팔리는 액운을 만났으니 河山陵谷 어디를 간다고 해도 비참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물건은 드러나고 숨는 때가 있으니 虞山사람이 말했듯이 明妃[漢 元帝妃]가 呼韓[흉노 單于의 이름]에게 시집갔다는 격이다. 이제 다행히 돌아갈 곳을 얻었으니 내가 吳興[조맹부 출생지]에게 술잔을 채워 이 서권과의 만남을 축하하려고 한다. 아니면 아직 苕溪[오홍의 川名]의 한 발떼기도 모르고 東陵瓜[秦 東陵侯가 포의가 되어 심은 맛난 외]를 심지도 않은 자가 나의 이러한 뜻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아니다. (『白下集』卷10, 「題信卿所購趙子昂書後」)

46) 미불의 서론은 『海岳題跋』·『寶章待訪錄』·『海岳名言』에 보이는데 특히 『해악명언』에 잘 나타난다. 李成美, 「米芾의 『海岳名言』」, 『考古美術』 146·147(1980.8), pp.94-102 참조. 미불 서예에 관해서는 Lothar Ledderose, *Mi Fu and the Classical Tradition of Chinese Calligraphy*, New Jersey : Princeton Univ. Press, 1979 (코타ール 레타로-제 著·塘耕次 譯, 『米芾』-人生と藝術-, 東京: 二玄社, 1987) 참조.

47) 中田勇次郎, 『中國書論集』(東京: 二玄社, 1970), pp.195-216 「蘇東坡의 書と書論」·「黃山谷의 書と書論」; 蔡崇名, 『宋四家書法析論』(臺北: 華正書局, 1986) 참조.

라고 하면서, 조맹부의 글씨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배우지도 않는 세태를 지적하였다. 사실 왕희지로 대표되는 고법의 글씨로 직접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후대서가가 한결같이 느끼는 바였다. 그런데 조맹부라는 매개자를 통해 晉·唐의 글씨가 소화·재생되면서 접근하기 쉬워졌고 그래서 그를 “王羲之의 嫡流”라 하여 북고주의의 대명사로 불렀던 것이다. 백하는 이미 송설체에서 멀어진 시대 속에서도 왕희지 서법의 재현에 있어 조맹부가 누구보다 뛰어난 서가라는 것을 인식했던 것이다.

이상으로 보면 역대서법에 대한 백하의 인식은 二重的 성향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왕희지를 위시한 고법을 귀중히 여기고 안진경 이후의 당·송·명의 서예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도, 한편으로 고법을 깊이 이해했던 후대의 서가에 대해서는 우호적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이러한 백하의 선별적 서예관은 기록의 한계로 더 이상 상론할 수 없지만, 그의 글씨에 나타난 여러 서풍을 보면 역대서법에 대한 인식은 일종의 이상적 목표 내지 궁극적 귀의처일 뿐 현실적 수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白下의 글씨

백하가 초년시절에 누구로부터 글씨를 배웠다는 기록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글씨에 뛰어났던 선조들로부터 가풍으로 이어받아서 타고난 재질로써 일가를 이루었다고 여길 따름이다. 그러한 점으로 보아 백하가 역대의 서법을 널리 수용하였을 터인데, 특히 그의 선조들이 明·淸에 가는 사절로 다수 참여하였고 백하 또한 赴燕사절로 참여하여 중국의 필적을 구해왔던 것이다.⁴⁸⁾

현존하는 백하의 글씨는 대부분 楷·行·草이며 篆·隸는 매우 적다. 백하가 살던 시대에는 古代의 金石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일어나 일부에서는 秦·漢代의 篆·隸를 수용하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 海·행·초가 주류였고 백하가 수용한 글씨 또한 대부분 그러했기 때문에 전·예에는 그다지 전심하지 않은 듯하다. 또한 중국글씨 외에 김생·김구 등 우리나라 명서가의 글씨도 널리 수용했지만 이를 명시하는 예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백하의 글씨에는 여러시대의 서풍이 혼재되어 있어 어느 한 시대의 특징을 지적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한 시대의 서풍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예를 중심으로 중국글씨와 단순하게 비교하여 백하가 수용한 중국서풍의 폭을 가늠해 보겠다.

48) 尹斗壽·根壽·昉·暉·暉·新之·順之·堦 등 백하의 선조들이 명·淸에 사신으로 다수 파견되었다. 그중 윤근수는 5차례나 갔는데 1594년 『淳化閣帖』을 사왔다가 당시 帖學의 대가였던 王世貞(1526-90)의 아들 王士駒와 사위 華叔陽과 교류했음이 주목된다(『月汀漫筆』). 그의 형 尹游도 燕行했으며 백하도 1723년 사은사서장관으로 淸에 갔으며 1728년 동지정사로 淸에 갔다. 특히 1728년 사행시에는 淸皇으로부터 書畫帖을 증여받았고 서화를 구입했다고 전한다. 주 18 참조.

1.楷書

백하는 王羲之와 顏眞卿, 蘇軾, 文徵明의 해서를 두루 수용했다. 왕희지의 해서로 전하는 <樂毅論>·<黃庭經>·<東方朔畫贊> 등의 小楷法帖은 唐代的 유명한 저록에 왕희지 글씨로 언급된 이후 역대로 학습되었고 한편 오랜 번각에 따라 晉代의 필의에서 멀어지기도 했다.⁴⁹⁾ 따라서 그 진위에 대해 여러 설이 있지만 역대의 해서풍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었고, 조선중기 이후로 널리 학습되어 石峰 韓濩(1543-1605)를 위시한 많은 서가들의 바탕이 되었다. 이들 가운데 백하는 특히 <黃庭經>·<遺教經>을 즐겨 임서했고 그 유행에 큰 역할을 했다는데⁵⁰⁾ 현재 이를 명시하는 임서작이나 초기작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 영향을 받은 듯 唐楷에 비해 납작한 짜임에 가로획과 빼침이 긴 소해가 다수 전하는데 노년의 대표작인 <古詩>(1737)⁵¹⁾와 같은 예가 바로 그렇다(圖 1·2). 또한 조선시대에 국가의 서사업무에 널리 쓰이던 소위 晉字(晉體)를 따른 소해도 있는데⁵²⁾ 이것 역시 왕체소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圖 3·圖 453).

다음으로 중자나 대자로 쓴 碑碣 중에는 안진경·소식의 해서풍을 수용한 예가 있다. 예를 들어 <李大諫碑銘>(1728)⁵⁴⁾은 안진경의 필의가 배어 있고(圖 5·6) <積石寺碑 題字>(1714)⁵⁵⁾는 소식의 필의가 배어 있는데(圖 7·8), 특히 가로획 끝이나 갈고리에서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난다. 그러면서도 사방이 찬 顏·蘇의 짜임에 비해 약간 성글다.⁵⁶⁾

-
- 49) 下中邦彦 編, 『書道全集』 4(東京:平凡社,1960), pp.153-158 圖版解説; 中田勇次郎, 『中國書論集』(東京:二玄社,1970), pp.83-142 「黃庭經諸本鑑賞記」·「孝女曹娥碑眞蹟本および諸本」.
- 50) 趙龜命, 『東谿集』 卷6, 「題從氏家藏遺教經帖」 五則, “嘗見朴士安誌載 士安筆法魯公 當時學書者 多慕效之 燕肆魯公帖 爲之價貴 未必如今之尹尙書之驅變一世也 黃庭遺教曹娥三藏 殆家藏之 未知燕肆諸帖之價 翔登如何爾.”/ 李匡師, 『書訣』 後編 下, “黃庭內外帖 俱出右軍 而內經尤鉅麗 其體態之耿介瀟灑 雖遜外經 亦縹厚典實 甚有意氣 近世尹白下 專悅外經 故人遂賤內經 而購來者絕希 殊可歎也.”/ 李奎象, 『一夢稿』 「書家錄」(『韓山世稿』 卷30), “尹白下始純模於遺教經黃庭經 其模臨帖者 莫辨何者王何者尹.”
- 51) 이 글씨가 실린 尹白下筆書軸은 말미의 “丁巳春季讓叟書于太華山陰”이란 관서로 보아 58세 때인 1737년 3월에 쓴 것이다. 『文選』의 古詩 12수를 대중소의 해행초로 썼는데, 백하글씨 머리에 「靑箱閣藏」(백문방인), 말미에 「仲和」(주문방인)·「白下」(백문방인)·「太學士大家宰章」(백문방인)이란 印文이 있다. 서축 맨 앞에는 李德壽의 題가 있고 백하글씨 뒤에는 洪良浩의 題後, 姜世晃의 跋, 曹允亨의 觀記가 있다.
- 52) 백하는 국가의 서사업무에 다수 참여했다. 대표적으로 1724년 國葬都監書寫官으로 景宗의 誌文을 썼으며(『景宗實錄』 卷15, 4년 12월 16일 을묘), 1740년 三殿傳號都監書寫官으로 玉冊을 썼는데(『英祖實錄』 卷51 16년 6월 신묘; 7월 경인) 현재 그 실물이 전한다[國立全州博物館 編, 『朝鮮時代古文書』(1939), pp.8-9 圖3 참조].
- 53) 圖4는 ‘三老人間年’ 고사를 읊은 것으로 크기·바탕 및 「尹淳章」·「白下」란 印文이 일본 大和文化館 소장 『藝苑合珍書畫冊』 亨利·貞 3冊에 실린 것과 같다. 中國故事 8편씩을 尹淳이 쓰고 화원 秦再奚·張得萬·梁箕星·韓後良이 그린 것으로, 그중 利冊 일곱번째 글씨가 탈락되었는데 혹 圖4가 그것이 아닌가 싶다. 『大和文化館所藏品圖版目錄』 No.8 繪畫·書籍[中國·朝鮮篇](1988), 도판68 참조.
- 54) 이대간은 사헌부대사간 李效元(1549-1629)이다. 비문은 외증손 崔錫鼎(1646-1715)이 짓고 외현손 金棟(1653-1719)가 篆한 것을 백하가 1728년 6월경에 썼다.
- 55) 적석사비는 一行스님이 세운 것으로 비문은 李冲謙(全義人)이 지었다. 말미에 “崇禎紀元後八十七年甲午六月日立 南原梁應漢刻後書”란 刻手의 기년으로 보아 백하가 1714년(35세) 이전에 썼다고 여겨진다.
- 56) 소식의 대표적 해서비명인 <表忠觀碑銘>·<宸奎閣碑銘>은 그가 黃州로 유배될 때를 전후하여 안진경과 양응식을 배워 쓴 것이므로 顏·蘇 서풍의 연계를 보이는 예이다.

한편 金正喜(1786-1856)는 백하가 文徵明의 小楷를 배워 짧은 세로획의 윗쪽이 굵고 아래로 쪽 빠진 점을 닮았다고 하였다.⁵⁷⁾ 文의 소해에 대해 文嘉는 “비록 황정경과 악의론에서 나왔지만 溫純精絶하였다” 하였고 王世貞은 “二王을 스승으로 하여 지극히 정교하지만 단지 좀 뾰족한 것이 특색이다” 했듯이⁵⁸⁾ <황정경>류를 따른 文의 소해와 <五言律詩>⁵⁹⁾와 같은 백하의 소해에서 그러한 유사성이 보이며 露鋒으로 가볍게 처리한 起筆도 그렇다(圖 9·10). 또한 백하의 제자 李匡師가 백하 해서를 임서한 것에서도 그러한 특징을 볼 수 있다(插圖 2). 이밖에 <貞穆公墓表陰記>(1735)⁶⁰⁾는 진·당풍이 다분히 혼용되어 있으며, <古詩>(1737)는 당·송·명풍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예라고 하겠다(圖 11·12).

2. 行 書

백하의 행서는 왕희지 계통의 행서를 근간으로 米芾의 행서풍을 크게 수용했으며 董其昌의 서풍도 일부 수용했다고 여겨진다. 우선 백하가 쓴 비명 가운데 연대가 이른 것들은 대부분 왕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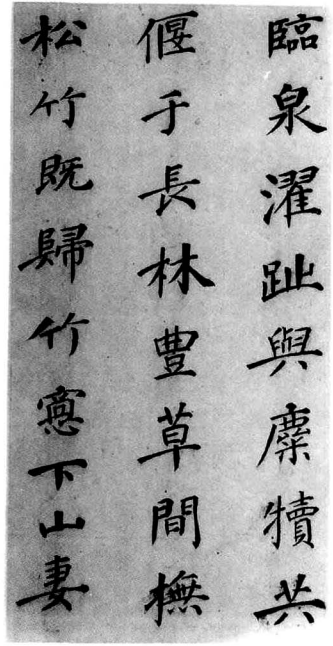


插圖 2. 李匡師, <臨尹白下楷法>, 1734년 紙本 21×10.5cm 先輩筆蹟帖所收, 서울 개인.

계통의 행서풍을 보인다. 예를들어 이른 시기의 비명인 <積石寺碑銘>(1714)은 왕희지의 글자를 모아 새긴 <集字聖教序>를 따랐는데, 아직 짜임이나 획법에서 긴밀하지 못한 면이 나타난다(圖 13·14). 이와 유사한 예로서 <霜峯大師碑銘>(1716)⁶¹⁾은 왕희지체에 근원했으면서도 자형을 자유롭게 변화시켰는데, 그 필의는 창달한 필세로써 왕희지 행서를 신선하게 소화해 낸 唐 李邕의 서풍에 근접하고 있다(圖 15·16).

다음으로 미불의 행서풍이 강하게 나타나는 예이다. <李昌發墓碣銘>(1728)⁶²⁾과 같은 예는 이전의 비명과 다른 면모를 보이는데, 왕희지 행서의 자형에 근원하면서 짜임을 자연스럽게 변화시

57)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卷8, 「雜識」(文淵閣, 1988), pp.597-598.

58) 文徵明, 『甫田集』 卷36, 文嘉撰「先君行略」, 王世貞, 『藝苑卮言』 附錄3.

59) 이 글씨가 실린 尹淳筆書畫帖에는 「後赤壁賦」 등의 시문이 실려있다. 小字·中字의 해행초로 썼으며 앞쪽에 黑絹金泥靑綠으로 그린 小景山水人物圖 2점이 있다. 기년이나 이를 추정할 만한 것은 없지만 노필의 기미는 없다.

60) 정목공은 金東弼의 조부 金禹錫(1625-1691)이다. 1735년 4월 長湍 松西의 묘를 근처로 改葬하면서 金의 부탁으로 백하가 그해 8월에 撰并書한 것이다. 묘표 앞면은 김동필이 썼다.

61) 霜峯大師(1621-1707)는 寧邊출신으로 속성은 金, 법명은 淨源. 비석은 문경 봉암사 일주문 옆 계곡 위에 반쯤 걸린 채 전한다. 李德壽가 짓고 백하가 書并篆했다.

62) 이 묘갈명은 17세에 요절한 掌樂院僉正 李敬躋(全州人)의 외아들 이창발(1688-1704)의 것으로, 미망인 安東權氏의 부탁으로 1728년 6월경에 백하가 짓고 썼으며 앞면은 曹命教가 篆했다. 명문은 『白下集』 卷7, 「完山李君墓碣銘」 참조.

키고 획법을 유연하게 처리한 점이 미불의 필의를 닮았다(圖 17·18). 명문이기 때문인지 해서에 가까운 자형과 네모진 짜임을 많이 취했는데 곳곳에 백하가 수용한 해서풍이 드러난다. 특히 소식 서풍이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단정한 필치로 쓴 <書簡>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圖 19). 같은 서간으로 미불의 필의를 물씬 풍기는 예가 다수 전하는데, 세로로 긴 자형에서부터 획법이나 운필에 이르기까지 마치 한 사람이 쓴 듯 흡사하다(圖 20·21). 또 大字로 쓴 <杜甫詩古栢行>(1731) 63과 <七言絕句>는 미불의 <天馬賦>와 같은 필의인데 획의 太細와 먹의 潤渴에 변화가 많아 유연하면서도 경쾌한 느낌을 준다. 이는 아마 부드러운 羊毫를 사용했기 때문일 듯하다(圖 22·23·24). 이와같이 미불행서에 바탕한 類가 백하행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필치는 평담함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했던 미불의 글씨에 비해 짜임과 운필에 변화가 많으며 자태가 아름답다.

이런 점에서 백하행서에 나타나는 明 董其昌(1555-1636)의 서풍이 주목된다. 예를들어 단정한 필치로 쓴 <五言律詩>가 그러하며(圖 25·26), 또 노년의 대표작 <古詩>(1737)는 미불행서에 기 반하면서도 먹의 潤渴처리나 의도적인 太細와 潤渴의 강조 등이 그렇다(圖 27·28). 백하가 동기 창글씨를 배웠다는 기록을 아직 접하지 못했지만 그가 미불글씨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宋代名蹟을 널리 이해했던 동기창에 관심을 가졌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된다. 이미 淸에 들어서면서 康熙帝 이래의 동기창 推崇과 함께 그의 글씨가 널리 유행했고 그의 생전부터 필적이 간행되었으며⁶⁴⁾ 우리나라에서도 17세기말 18세기초를 즈음하여 남종화풍의 전래와 함께 동기창의 회화가 어느정도 수용되었음을 보면⁶⁵⁾ 그의 서예에 대한 이해 또한 어느정도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백하 60세(1739)의 <五言詩>⁶⁶⁾는 老筆의 자취가 보이지만 中鋒勢를 많이 취하면서 자유스런 짜임과 분명한 운필을 보인다. 그런데 글자의 짜임을 늘씬하게 하고 빼침이나 가로획을 길게 뽑은 점이 색다른데, 필시 黃庭堅(1045-1105)의 행서나 그것을 따랐던 문징명의 행서풍에서 응용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각진 黃·文의 획에 비해 둥글고 부드러운 백하 특유의 필치를 보인다(圖 29·30). 백하제자 이광사의 6세손으로 『백하집』 서문을 쓴 蘭谷 李建芳(1861-1939)이 백하의 서예에 대해 “미불·황정건의 神髓를 깊이 얻었다”⁶⁷⁾ 한 것도 이런 글씨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63) 원래 대폭인 것을 割裁하여 裝帖했다. 친우 松石軒 宋成明에게 杜甫의 칠언시 「古栢行」을 써준 것이다(“辛亥季夏 白下病樵仲和 爲松石主人 書于城西僑廬”). 「고백행」은 두보가 夔州 諸葛孔明廟인 武侯祠 앞의 늪을 지나 무를 보고 읊은 시이다.

64) 동기창 서예에 관해서는 Xu Bangda, “Tung Ch’i-ch’ang’s Calligraphy,” *The Century of Tung Ch’i-ch’ang 1555-1636* Vol. I(Kansas:The Nelson-Atkins Museum,1922), pp.105-132; 汪慶正, 「董其昌法書刻帖簡述」, 同書 Vol. II, pp.335-348 참조.

65) 安輝濬, 「南宗畫의 定着과 流行」, 『韓國繪畫의 傳統』(文藝出版社,1988), pp.271-284. 姜寬植, 「朝鮮後期 南宗畫風의 흐름」, 『潤松文華』 39(1990), pp.49-52.

66) 원래의 大幅이던 것을 橫卷으로 개장하였다. “歲己未浴佛後三日白下翁書于木蓮棚下”라고 하여 1739년 석가탄신일 후 삼일째에 썼는데 1739년 4월 5일자 「祭李廷濟文」(『白下集』 卷9)에서 “病淹牀席 不能躬伸一動”이라 한 것을 보면 당시 병이 깊었던 듯하다. 말미에 「海平」(주문방인)·「鶴陰」(백문방인)·「白下山樵」(주문방인)·「尹淨仲和」(백문방인)·「太學士大家宰章」(백문방인)의 印文이 있는데, 捺印방식이 국립중앙박물관소장의 尹白下 筆書軸(1737)과 같다.

67) 『白下集』 「白下先生文集序」, “...而尤工書法 深得米黃神髓 人爭寶弃之...”

3. 草 書

백하의 초서는 행서와 같이 고법을 바탕으로 송·명의 초풍을 수용했다. 백하도 초년에는 『淳化閣帖』·『十七帖』 등을 통해 왕희지를 위시한 고풍의 초법을 배웠겠지만, 그런 자취를 뚜렷이 보이는 예는 드물다. 또 金絀 등 우리나라 名草들의 글씨도 수용했겠지만 그런 자취를 전하는 예도 보이지 않는다.

현전하는 초서는 대부분 미불의 초풍을 수용했거나 이를 바탕으로 자가화한 것들이다. 그중 <五言律詩>와 같은 초서는 한 글자씩 떨어진 獨草로서 자형이나 획법에서 고법의 전형이 많이 남아있는 예라고 하겠다(圖 31). 같은 첩의 <七言律詩>는 행·초를 섞어 썼는데 운필의 완급이나 짜임·태세에 변화를 가미하는 방식이 미불과 흡사하다(圖 32·33). 또 초서로 쓴 <書簡>도 미불의 그것과 유사한데 단지 글자가 왼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나타난다(圖 34). 한편 <古詩>(1737)와 같은 예는 고법의 자형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중봉세를 사용한 빠른 운필이나 의도적인 태세강조 등에서 동기창서풍의 수용을 짐작케 한다(圖 35·36). 백하의 행서에서와 같이 초서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이밖에 백하의 개성적 초풍으로 <箴言>⁶⁸⁾과 같은 예는 圓筆勢의 유려한 운필과 납작한 짜임 등에서 백하의 독특한 면모가 나타나는데, 그 바탕에는 미불의 서풍이 강하게 깔려 있다(圖 37). 또 초서로 쓴 서간 가운데 連綿性이 강하고 운필이 분방한 예도 있는데, 이런 類는 고풍에 바탕했 으면서도 서가의 개성과 버릇이 잘 드러난 예라고 하겠다(圖 38).

이상에서 보았듯이 백하의 글씨는 왕희지 등의 고법에 바탕하면서 唐·宋·明의 역대글씨를 두루 수용했는데, 특히 행·초에서 미불의 글씨에 크게 힘입었으며 문징명의 해서풍과 동기창의 행·초풍도 수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백하의 글씨는 각각이 미묘한 정취를 보이는데 이는 그가 여러가지 서풍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분위기를 교묘하게 변환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는 그의 서예가 당대와 후대에 어떻게 평가되었는가 살펴보면서 언급하겠다.

IV. 白下 글씨에 대한 評

백하의 글씨에 대한 평에는 讚賞 위주도 있고 실제적인 지적도 있다. 그중 백하글씨가 어디에서 나왔고 또 백하글씨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평은 백하 서예의 시대적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澹軒 李夏坤(1677-1724)은 1716년 9월 백하와 함께 속리산을 여행했는데 그때의

68) 이 글씨가 실린 白下墨妙帖은 대부분 중자·소자의 행·초로 쓴 시문이고 소해가 1점 있다. 서풍은 미불풍을 가미한 자가풍이며 기년은 없다. 첫번째 詩 끝에 “白下老樵”·“白下樵人”(백문방인)이란 款畧가 있고, 말미의 두 면에 예서로 쓴 題書[“碧梧清暑戲于白鶴山房” “仲和”(주문방인)]와 수묵산수도가 각각 있다.

감회를 백하가 「山中九日」(『白下集』卷1)로 적어 보내자 이에 次韻하여 백하글씨를 찬미하기를

기세는 호방하여 사자가 돌을 굽은 듯,	氣豪貌挾石
자태는 교묘하여 여인이 꽃을 꺾은 듯.	態妙女簪花
뛰어나다 그 누가 필적할 수 있으리,	卓矣誰能匹
편안히 動하지 않고 독보하는 필가라네.	居然獨擅家
휘호하매 颯颯한 비바람 소리더니,	揮豪颯風雨
종이가득 간드러진 구름과 노을이라.	滿紙裊雲霞
한 글자 한 글자 璧을 보듯 아름다우니,	隻字看如璧
아마도 끝이 없이 널리널리 전하리.	流傳恐未涯

(『頭陀草』卷7, 「仲和見過袖示花字三詩皆清麗可喜輒復次其韻以寄」 중 「頌仲和筆勢」)

라고 하였다. “호방한 기세”와 “교묘한 자태” 또는 “颯颯한 비바람 소리”와 “간드러진 구름과 노을”이란 상대적 의미의 어휘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평자의 주관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속에서 백하가 시원스런 운필과 교태로운 필치로써 독보적인 경지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東谿 趙龜命(1693-1737)은 백하의 서첩에 題하기를

백하의 서첩을 보니 마치 옷감가게에 들어가 무늬비단을 보듯 가지각색이며 새롭고 교묘하다/ 우리나라 명필로 의당 삼대가를 드는데 安平은 정신이 뛰어나고 石峯은 기력이 웅혼하니, 백하는 그런 까닭에 마땅히 법도와 변태로써 대적할 것이다./ 詩에는 挹翠軒(朴閔)·蘇齋(盧守愼)·三淵(金昌翁)이 있고 文에는 簡易堂(崔岾)·谿谷(張維)·農巖(金昌協)이 있는데, 三藝[詩·文·書]를 다 이루어 두루 통합에 있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부합되는 자 서너넋 있을까? 백하는 법도에 깊었다. 그런데 오로지 宋·明에서 마음질을 취했으니 그의 文이 漢을 따르려 하고 詩가 唐을 따르려 한 것은 스스로 헤아리지 않았음을 많이 보이는 것이다./ 매번 중국사람 글씨를 보면 가늘고 길면서 오른쪽이 충실하여 백 사람이 한결 같은데, 尹의 글씨는 짧고 너르며 왼쪽이 넘치니 이것이 그 합치되지 않는 점이다./ 중국사람의 좋은 필적은 짜임이 긴밀하면서도 필세가 문득 살아나서 마치 연기가 피어나고 구름이 흘러가는 듯한데, 백하 글씨는 비록 종더라도 함께 놓고 그것을 보면 塵世를 격한 듯하니 이는 氣風의 한계라고 해야 할 따름이다.

覽白下帖 如入織坊閱文錦 色色新巧/ 我朝名筆 當推三大家 安平精神超詣 石峯氣力雄渾 白下故當以法與變態敵爾/ 詩有挹翠蘇齋三淵 文有簡易谿谷農巖 三藝俱成鼎足 殆亦有符於東方木三數歟/ 白下深於法矣 而專取裁於宋明 彼文欲漢 而詩欲唐者 多見其不自量也/ 每見華人筆 纖長而右實 百家一律 尹筆短闊而左贏 此其不合處爾/ 華人善蹟 結構緊而筆勢便活 如煙霏雲曳 白下書雖佳 竝覽之 猶似隔塵 當是風氣之限耳 (『東谿集』卷6, 「題白下書帖」六則)

라고 했다. 曹는 백하글씨가 가지각색이며 새롭고 교묘하여 “법도와 변태로써 대적할 것이다” 했는데, 이는 백하가 서법의 도리를 지키면서 그 태도를 변화시킴에 있어 누구보다 뛰어났다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曹는 백하가 詩文에서 漢·唐을 따르려 했으면서도 글씨에서 宋·明으로 마음질했

음에 대해 사려깊지 않다고 했는데, 이는 일정한 시대의 詩·文·書를 취해야 일관된 文藝精神이라고 본 기존관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백하글씨가 짧고 느리며 왼쪽이 넘치어 중국글씨와 합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백하가 왕희지·소식의 해서와 미불의 행·초를 수용했기 때문일 터이니 曹가 기준한 중국글씨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또 그렇다고 해서 중국글씨에 비해 “塵世를 隔한 듯”하고 그것이 “氣風의 한계”였겠는가? 만약 曹가 중국글씨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백하글씨를 넓게 살폈더라면 백하의 단점을 좀더 논리적으로 평했을 것이다.

員嶠 李巨師는 스승의 영전에 올린 祭文과 스승의 서첩에 적은 跋文에서

기억나네 처음 옷매무새 가다듬고 실제 비결을 여쭙던 일, 公의 운필을 보았더니 천상세계의 神逸이었네. 王羲之 부자와 鍾繇·張芝·歐陽詢·薛稷에서 아래로 李邕·張旭에까지 빼어난 精氣를 모으셨네. 一家의 妙를 이루셨으니 귀신의 조화런가. 아주 미세한 것에서도 처음과 끝이 엄밀하셨네. 젓먹이가 祝文을 꾸민 듯 벼슬아치가 貴人이 된 듯, 동쪽사람의 누추하고 저열함을 싹 씻어 버리셨네. 나를 雙鉤로 시험하시곤 뽀진하다 칭찬하며 혀를 차셨고, 魏晉에 이르라 기대하며 제자로 삼기를 허락하셨네.	記始攝齊 實叩秘訣 觀公運豪 天界神逸 官奴父子 鍾張歐薛 下至邕旭 英精是掇 成一家妙 鬼化神設 毫芒鏘鏘 殿最嚴密 黻黻文祝 衙官襄馘 洗盡東人 吏陋隸劣 試我雙鉤 稱遍咄咄 期以魏晉 許以衣鉢
---	--

(『圓嶠集選』卷6, 「祭白下尹尚書淳文」; 『白下集』附錄, 祭文)

백하의 글씨는 纖하며 왼쪽이 기울었는데 이것이 서가의 단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陋俗함을 단번에 씻어버렸으며 晉唐의 획과 법을 얻었으니 실로 백하는 백년을 계몽했다고 할 수 있다.

(『權域書論微』, 尹淳條「白下書帖跋」)

라고 하였다. 위의 제문은 운문이기 때문에 字數와 韻律을 맞춰야 하는 제약도 있었겠지만, 또 옛 명 서가를 상투적으로 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속에서 백하가 晉·唐 이전의 고법을 널리 수용했음을 알겠으며 제자에게 魏·晉에 이르라고 한 것에서 백하가 지향한 바를 짐작할 수 있다. 발문에서도 백하가 晉·당의 필법을 얻어 우리나라를 계몽했다고 하였지만 백하가 송·명의 글씨를 배웠다는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필시 스승의 기대에 따라 위진고법에 천착했던 제자의 시각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豹庵 姜世晃(1712-1791)이 백하의 刻帖을 倣하고 쓴 글과 紫霞 申緯(1769-1847)가 백하의 서첩에 題한 글은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이 첩을 보니 原本의 휘호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다만 그 건실한 팔첩과 굳센 필봉은 당해낼 수 없는 세력이 있으니 역시 어떻게 工과 拙을 논하겠는가? 비슷하게 썼나? 세번 탄식하고 題한다.

觀此帖 可想原本揮毫之態 第其健腕勁鋒 有不可當之勢 亦何論工與拙 似不似耶 三歎而題 (『豹菴遺稿』 卷5, 「傲白下帖」)

公의 글씨는 태도가 많으니 華亭[동기창]에 비견할 만하네. 公書多態度 華亭堪比倫
華亭은 거울 속의 얼굴이니 때때로 예쁜 부인이 나타나네. 華亭鏡中相 時現美婦人
(『警修堂全藁』 卷6, 「題白下公書帖」; 『槿域書畫微』, 尹淳條)

강세황이 건실한 필력과 굳센 필봉을 언급했음에 반해 신위는 다양한 태도와 예쁜 모습을 언급하였다. 이는 앞서 李夏坤의 詩에서 상대적 어휘로 비유되었듯이 백하글씨의 다양한 정취를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는데, 특히 “鏡中相”·“美婦人”이란 시어으로써 동기창글씨의 특성을 백하글씨에 비유한 것은 백하의 董風수용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이상의 시문에서 백하 서예의 장단점을 어느정도 지적했지만 실제 그 대상이 무슨 서체였고 어떤 서풍였으며 또한 작품성의 높낮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논평의 가치도 따져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백하가 1737년 3월에 쓴 尹白下筆書軸(국립중앙박물관 소장)에 실린 4편의 題跋은 백하글씨에 대한 논평을 실증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이 서축의 맨앞에는 西堂 李德壽의 題文이 있고 백하글씨 뒤에는 耳溪 洪良浩(1724-1802)의 題後, 豹庵 姜世冕의 跋文, 松下 曹允亨(1725-1799)의 觀記가 있다.

<李德壽 題文> 書는 六藝의 하나인데 小道라고 하여 익히지 않을 수 없다. 익혔다면 그 묘를 다 해내지 못하는 역시 그 재질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근세에 이 藝에 정통한 사람이 전무한 것은 생각컨대 이 때문이 아닐까? 오직 백하가 처음으로 晉唐 이래 여러 명가의 장점을 모아 뛰어난게 일가를 이루었으니, 論者가 “이전에 그런 古人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찬사가 아니다. 그런데 그의 행초는 米南宮을 많이 배웠는데 이따금 기이하여 사람들을 놀래킨다. 유독 이 서축은 한가롭고 담담하기가 高人逸士와 같아서 속세의 기미가 전혀 없으니, 어찌 그가 관직을 마다하고 산으로 돌아간 뒤에 쓴 것이기 때문에 필획 역시 그가 행동하는 바와 같아서 그렇겠는가? 거듭 귀중하다. 정사년(1737) 삼월 이십삼일 李仁老가 題하다.

書爲六藝之一 不可謂之小道而不習也 習矣而不能臻其妙 則亦其才有以有限之耳 近世絕無能精是藝者 顧不以是歟 惟白下始集晉唐以來諸名家之長 卓然自成一家 論者謂前無古人 非過褒也 然其行草多學米南宮 往往怪偉驚人 獨此軸閑淡如高人逸士 絕無烟火氣 豈以其謝官歸山後所書 故筆畫亦類其所以行而然歟 重可貴也 丁巳三月二十三日 李仁老題

<洪良浩 題後> …(金生 이야기)…오직 백하 尹公이 천년 뒤에 태어나 뛰어난 재능으로 우리나라의 고루함을 단번에 씻어버렸다. 金生 이하 제가들을 다 취하여 그 영화를 가려냈고 唐宋元明을 깊이 이해하여 永에 절충했다. 점획은 神氣와 骨肉이 다 만족스럽고 짜임은 法度와 意態를 다 갖추었으며, 신묘한 깨달음은 일가를 이루었고 원활하며 雅麗함은 右軍의 맥에 바로 닿았다. 교태롭기가 홀러가는 구름과 유희하는 용과 같고 농염하기가 예쁜 꽃과 잘생긴 여인과 같아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고 마음을 취하게 한다. 가히 인간의 絶藝이며 천하의 奇巧라고 할 것이다. 이에 서가의 만가지 필법이 다 드러나고 옛사람의 목은 자취가 다

없어졌다. 세상에 글씨 쓰는 사람이 일제히 宗으로 삼으니 다시는 戈勒波羅의 법[기본획법]에 종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직 눈과 팔 사이에서 공교롭기만을 구하니 그 폐단이다. 꾸밈이 지나치면 바탕은 망치어 날로 약하고 속됨으로 치달릴 뿐이다. 대저 왕희지를 書聖이라 하지만 韓昌黎(한유)는 오히려 속스러운 필치로 姿媚를 좇았다고 나무랐으니 하물며 그 아래것이야! 내가 백하의 글씨를 살펴보았는데 姿媚가 지나치니 어찌 속스러운 類에서 벗어나리요. 그래서 柳惠를 제대로 배운 자가 마땅히 때로 생각하여 덜고 더하리라. 지금 이 서축은 바로 그의 만년작으로 각체가 다 있어 참으로 보증하다. 그런데 단 해서는 古意가 적으니 대개 안진경·소식을 배웠기 때문이다. 행서는 弘福(집자성교서)에 근거하면서도 南宮에 들락거렸으니 축하면서 법칙이 있다. 초서는 淳化(순화각첩)보다 매우 빠르다. 을사년(1785) 여름 홍량호가 겸산루에서 쓰다.

(『耳溪集』卷7, 「題尹白下淳書軸」; 『槿域書畫徵』, 尹淳條)

<姜世冕 跋文> 論者が 백하의 글씨에 대해 “이전에 그런 古人이 없었고 후에도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하였는데 반드시 다 그렇지는 않다. 백하는 힘차고 정묘하며 자태가 절로 생겨나지만 끝내 石峯의 웅혼하고 질박함을 앞지르지는 못한다. 근래 한 두 사람 쓴다는 사람이 모두 백하에서 발원하는데 또 백하를 앞지르지 못하니, “前無古人”이라 함은 지나치나 “後無來者”라 함은 참으로 그렇다. 翰墨이란 小技 역시 세대에 따라 오르내린다. 이와 같아서 내가 여기서 개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 정미년(1787) 봄 강세황 쓰다.
論者謂白下書 前無古人 後無來者 未必盡然 白下之遒勁精妙 姿態橫生 終不能軼石峯之雄秀渾樸而上之 近來一二作者 皆發源於白下 而又不能軼白下而上之 謂前無古人則過矣 而謂後無來者則信然 翰墨小技 亦隨世升降也 如此余於是 蓋不勝其慨歎云 丁未春 姜世冕書

<曹允亨 觀記> 董文敏(동기창)은 “필관을 한번 쥐면 秀媚한 기미가 팔 사이에서 술술 나왔으니 이 때문에 古人에게 미치지 않는다” 하였는데, 나는 백하 글씨에 대해서 역시 그렇다. 오월 십삼일 조운형 치행이 觀하다.

董文敏云 一擗管 秀媚之氣 側出腕間 坐此不及古人 吾於白下書亦云 五月十三日 曹允亨穉行觀

題跋의 대강은 백하가 진·당 이래 명가들의 장점을 취합하여 일가를 이루었는데, 이 서축의 해서는 안진경과 소식의 서풍이 강하고 행서는 왕희지체에 근거하면서 미불을 크게 수용했으며 초서 또한 고법에 의거하면서 미불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백하를 신라 김생의 맥을 이으면서 “唐宋元明을 깊이 이해하여 이를 永和[왕희지시대 글씨]에 절충했다”는 홍량호의 평은 백하 서예의 요체를 잘 지적했다. 이러한 기준에서 백하를 “前無古人이요 後無來者이라” 하여 신선한 서풍을 일으킨 서가로 높게 평가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백하글씨에 나타나는 “夭矯·穠樸·姿媚·秀媚”한 필치, 즉 지나친 꾸밈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비판을 가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이 서축의 행·초에서 미불의 필의와 함께 동기창의 필의가 다분히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단지 조운형이 동기창의 말을 인용하여 백하의 글씨에도 秀媚한 필의가 보인다고 하였을 뿐인데, 이는 앞서 申緯의 題詩에서와 같이 동기창의 글씨가 보편화된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백하의 글씨에 나타난 董風이 어느정도 언급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燕巖 朴趾源(1737-1805)은 永平府 徐鶴年이 소장한 백하의 새김글씨에 대하여

尹公은 우리나라의 명필이다. 한 점과 한 획이 古法이 아닌게 없으며 천재의 화려하고 고음은 구름이 떠가고 물이 흘러가는 것 같으니, 번성하고 섬세함이 간간히 드러나며 살찌고 마름이 서로 어울린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 글씨에서 지적할 것이 없이 앎은 무엇인가? 대저 우리나라의 글자 배우는 사람은 옛사람의 목적을 보지 못하고 평생 임한 것이 다만 金石이기 때문이다. 금석은 단지 옛사람의 전형을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니, 그 필묵 사이의 무한한 정신은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비록 體勢를 방불하게 할 수는 있더라도 筋骨이 너무 세어 전혀 필의가 없으니, (먹이) 진해서는 墨豬[먹돼지]가 되고 말라서는 마른 등걸처럼 되버린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石刻의 바늘같은 획이 습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熱河日記』, 『徐進士鶴年永平府藏白下七律』; 『權域書畫徵』, 尹淳條)

라고 하였다. 박지원은 우리나라 사람이 진적을 보지 못하고 금석만으로 배웠기 때문에 筋骨氣가 강해 필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백하 글씨에 나타나는 무한한 정신을 높게 평하였다. 또 秋史 金正喜(1786-1853)는 백하의 글씨에 대해

백하의 글씨는 文衡山(문정명)에서 나왔는데 세상은 모두 알지 못하고 또 백하 역시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 文이 쓴 小楷赤壁賦 목탑본 하나가 우리나라에 나와 백하가 마음을 다해 그것을 배웠는데, 그 짧은 세로 획의 위가 두툼하고 아래가 쭉 빠진 점이 바로 그가 얻은 필법이다. 그런데 文의 글씨는 맑고 예쁘며 굳세고 날카로우나 백하는 좀 둔하고 좀 살찐 것이며, 또 文의 짜임은 모두 구양순·저수량·안진경·유공권이 서로 전한 옛법식에 맞으나 백하는 모두 멋대로 써서 한 글자 안에 가로획·세로획·점·배침을 몰아다 쏟아 부었다.

그러나 그 타고난 재질은 매우 특이하여 人工을 더해 갈내 일가를 이룬 사람이었다. 그는 衡山을 비근하게 여기지 않고 머리숙여 학습했으며, 뒤에 중요·왕희지를 함부로 일컫는 것처럼 멀리 치달려 스스로 크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가 金石碑版의 앞면에 쓴 大楷는 오로지 坡公(소식)의 表忠碑를 본받았고 그의 半草는 米南宮을 돌아갈 곳으로 삼아 모두 송나라 사람의 울타리 밖을 나가지 않았으니, 곧 그의 아는 능력은 크게 헤아려 보아야 할 곳이 있다.

그 문하에서 진수를 얻은 사람으로는 圓嶠(이광사)를 제일로 삼는데 원교가 초년에 쓴 해서는 스승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 한 솥이라 해도 실제로 알지 못한다. 단지 스승이 쓴 것을 따라 배우면서 일찌기 한 번도 스승의 글씨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묻지 않았으니 또 어찌 된 일인가. 스승 역시 자신이 나온 바를 말하지 않았으니 또 어찌 된 일인가. 아니면 혹 師道가 매우 엄하여 감히 함부로 여쭙지 못했던가. 스승이 말하지 않은 것도 곧 바탕을 보이지 않으려는 뜻이었던가.

백하는 양털붓을 사용했는데 徐丹陽(서무수)이 일찌기 말하기를 '스승께서 쓰시던 중국의 큰 붓을 보니 희기가 눈 같았는데, 결국 무슨 붓이었는지 알지 못했으며 감히 여쭙지도 못했다'고 하였으니, 대개 옛사람의 師道가 엄한 것을 또 볼 수 있다. 徐와 李는 모두 그의 뛰어난 제자이며 李 또한 그의 글씨를 傳授했지만 모두 양털인지를 몰랐다. 실사 그것을 알았더라도 백하는 능히 다른 것을 얻게 하였을 터이니 모두 붓의 성질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阮堂先生全集』 卷8, 『雜識』; 『權域書畫徵』, 尹淳條)

라고 하면서 백하글씨가 文徵明으로부터 나왔다고 했다. 문징명은 처음에 宋·元의 명적을 배우다가 그 필의를 깨달은 뒤로는 이를 버리고 魏·晉·唐의 필법을 널리 수용했으며, 특히 왕희지의 <黃庭經>·<樂毅論>를 배워 뛰어난 소해를 이루었다. 백하가 문징명의 소해를 수용한 것도 아마 王體小楷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터인데, 앞서 보았듯이 백하소해에서 문징명소해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 김정희의 언급에 수긍이 간다. 단지 백하글씨가 文의 소해에서 나왔다고보다는 文의 소해도 수용했다는 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 백하가 大楷와 行·草에서 宋人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다고보다는 宋人의 글씨를 크게 수용했다는 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백하글씨에는 그밖의 서풍도 적지않기 때문이다. 여하튼 魏·晉만을 절대가치로 여긴 후인들과 달리 백하가 宋·明의 글씨도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이 글을 이해한다면 金의 글은 의미있는 지적이라 하겠다. 또한 백하가 羊毫를 사용했다는 언급도 백하의 유연한 필치와 관련하여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의 논평을 종합하면 백하는 왕희지체를 근간으로 당·송·명의 역대명적을 두루 취합하여 독보적인 경지를 이룬 서가이며, 또한 그는 세련되고 아름다운 글씨로 당시의 서예에 새로운 기풍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백하글씨에 보이는 纖媚한 필치나 지나친 외형미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V. 白下 書藝의 의미

백하는 서예의 이상을 晉 왕희지체에 두면서 그 요점을 계승한 初唐의 서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았지만, 안진경을 비롯한 中唐 이후의 서예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그러면서도 고법에 이해가 깊었던 송 미불이나 원 조맹부에 대해서는 선별하여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또한 그의 글씨를 보면 자신이 비판했던 당 안진경, 송 소식, 명 문징명·동기창의 서풍도 수용하였다. 이와 같이 백하의 서예는 다양성을 지님에 따라 한편으로 명료하지 않은 서예관을 보였는데, 그래서 評者들이 “그의 아는 능력은 크게 헤아려 보아야 할 점이 있다”고 찬상하기도 하고 “스스로 헤아리지 않았음을 많이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던 것이며, 백하글씨의 出自에 대해 여러가지 설을 낳았던 것도 그러한 측면에서 연유할 것이다.

역대서예에 대한 이러한 백하의 시각은 무엇보다도 明末 이래의 중국서화론이 국내에 점차 소개되면서 당·송·명의 서예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던 데에 기인할 것이다. 이미 조선중기에 접어들면서 여말선초 이래로 풍미했던 송설체에서 왕희지체를 위시한 고법으로 돌아갔고 이에 朝鮮晉體를 이루어 내기도 했지만, 오랜 번각으로 인한 王體法帖 등의 한계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이에 唐 이후의 서예를 통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고, 백하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안진경·소식·미불·문징명·동기창 등을 통해 고법에 대한 이해폭을 넓혀갔던 것이며 누구보다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서예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었던 것이다.

백하의 이러한 수용태도는 그의 학문이나 정치성향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그가 성리학의 주류 속에서도 양명학을 이해하면서 사상적 유연성을 지니게 되었고 또 노소의 정쟁에서 벗어나 탕평의 입장에 섰던 것이, 바로 왕희지의 서법을 지향하면서도 그것만을 고수하지 않고 고법에 이해가 깊었던 서가는 물론 고법의 전통에서 벗어났던 서가까지 수용하는 탄력적인 서예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절대적 법도나 전형에 집착하지 않는 取長捨短의 태도, 즉 實效와 實得을 숭상하는 그의 사고에서 배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백하는 서예의 이상적 목표와 실질적 수용을 조화롭게 융화시킨 서가였으며, ‘仲和’라는 자신의 ‘字’에 걸맞은 학문과 행동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하겠다.

여하튼 백하의 서예는 일세를 풍미했고 후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중에서도 백하의 米芾選好는 추종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변모되어 갔고, 또 그의 董風受用은 18세기 후반부터의 董風유행에 선행이 되었다. 또한 백하로부터 初學에 심대한 영향을 받은 李匡師 등은 魏晉古法을 천착하고 나아가 이전의 篆隸古碑를 학습하여 백하 서예를 계승적으로 변모시켜 갔다. 따라서 백하의 서예는 중국의 역대서법을 두루 수용하고 이를 다양하게 구사함으로써 조선후기 서예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백하를 전후하여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서예교류에 관한 연구가 진전된다면 백하 서예의 의미를 좀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黃庭外經
 上有黃庭兩扉幽橫十務脩治氣固持宅約
 呼翁保身受慶老壯旁野方既是其堂達法
 真我恙中海采赤池要眇房負捐搖俗專繫
 觀志流暇安寧所時洗倉飢役丁謁存之常

圖 1. 王羲之, <黃庭外經>, 法帖 21.2×8cm, 안양 개인.

櫛柚垂華實乃在深山側間君好我甘竊獨自彫飾委
 身空山中歷年冀見食芳菲不相投青黃忽改色人儻
 欲我知目君為羽翼

圖 2. 尹淳, <古詩>, 1737년 紙本 縱44.9cm 尹白下筆書軸 所收, 국립중앙박물관.

竊獨自彫飾委
 黃忽改色人儻

圖 2-1. 圖 2 세부.

驚其神既驚其神即着萬物既着萬物即生貪
 求既生貪求即是煩惱妄想憂苦身心便遭濁
 流浪生死常沉苦海永失真道
 真常之道悟者自得、悟道者常清靜矣
 右賢愚見識章
 說常清淨經

圖 3. 韓濩, <說常清淨經>, 紙本 26.1×16.6cm 石峯眞蹟帖 所收, 국립중앙박물관.

昨騎鶴背蓬萊島不見城烟見三老殷勤致揖
 頻問年願言示我長生寶一云少與盤古遊開
 天闢地同悠悠從此洪荒成宇宙後吾生者誰
 為儔一云我年無紀載常見桑田變滄海每逢
 一變一添壽十屋壽盈顏不改一云從師弱水
 西為叅金母憇朝躋食桃遺核崑崙下而今樹
 與崑崙齊三言的的非虛迴醉裏乾坤顛呼醒
 谷神不泯性常存能與去翁壽齊等

圖 4. 尹淳, <七言律詩>, 紙本 35.2×29.7cm, 서울 개인.



圖 5. 尹淳, <李大諫碑銘>, 1728년 拓帖
36×24cm,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圖 6. 顏真卿, <多寶塔碑銘>, 752년
拓帖 字徑2.5cm, 서울 개인.



圖 7. 尹淳, <積石寺碑 題字>, 1714년
拓帖 字徑10cm, 서울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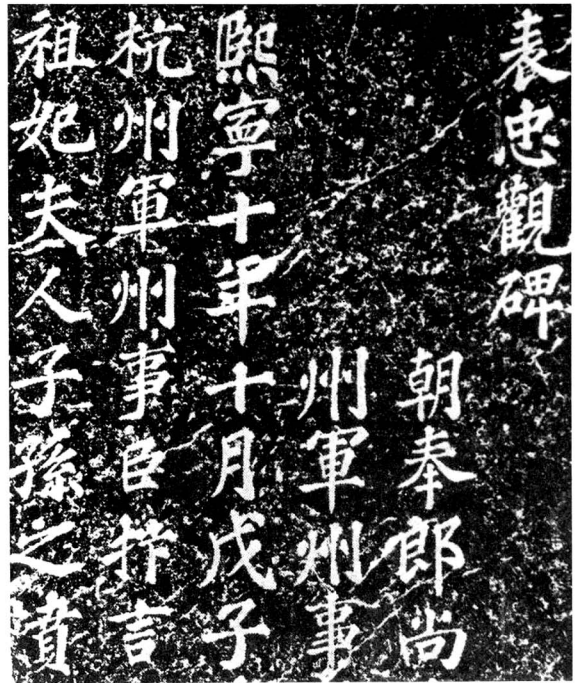


圖 8. 蘇軾, <表忠觀碑銘>, 1078년 拓本, 日本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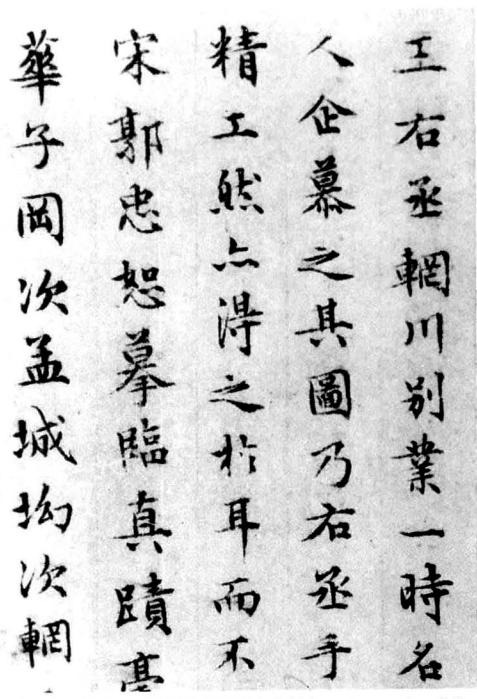


圖 9. 文徵明, <輞川圖卷跋(부분)>, 1544년 이후
紙本 세로28cm, 일본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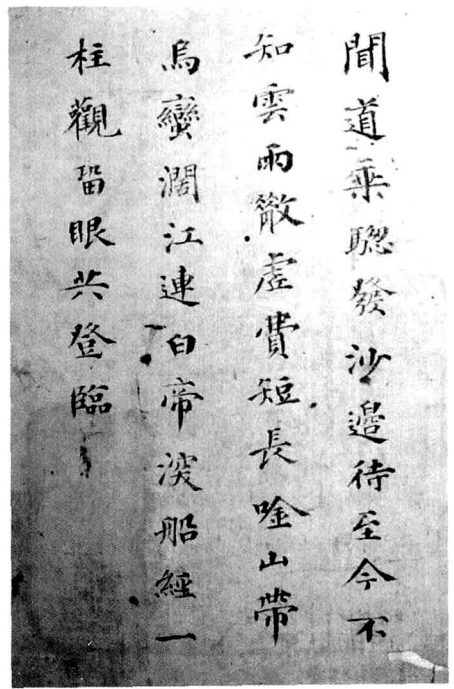


圖 10. 尹淳, <五言律詩>, 絹本 31.2×19.7cm
尹淳筆書畫帖 所收, 국립중앙박물관.



圖 11. 尹淳, <貞穆公墓表陰記>, 1735년
拓帖 32×20cm, 한국정신문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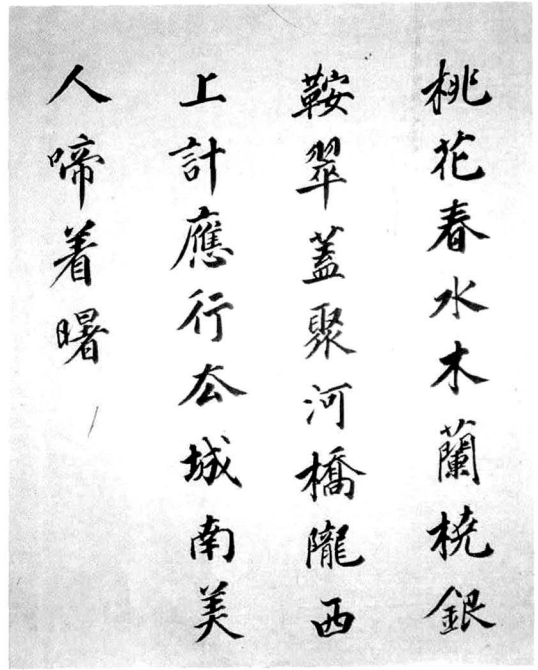


圖 12. 尹淳, <古詩>, 1737년 紙本 縱44.9cm
尹白下筆書軸 所收,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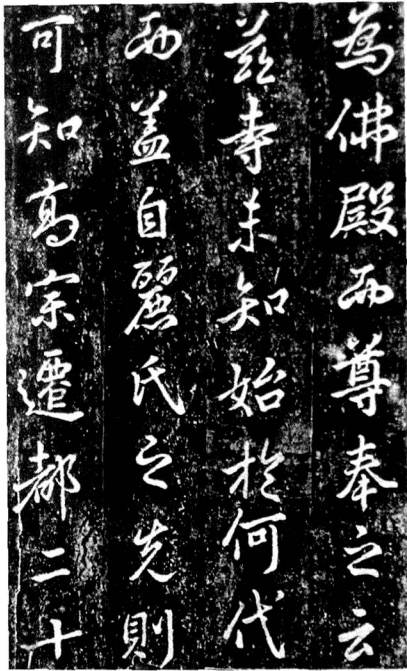


圖 13. 尹淳, <積石寺碑銘>, 1714년 拓帖, 서울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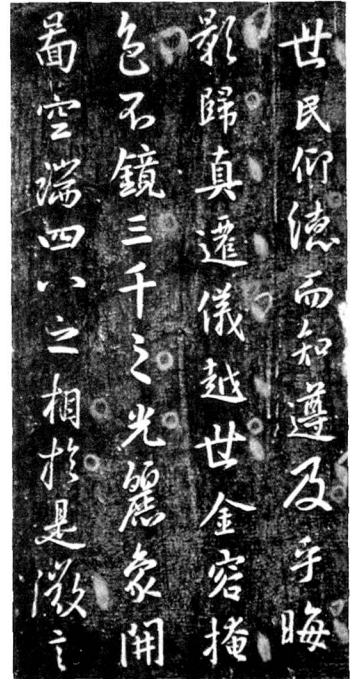


圖 14. 集王羲之字, <大唐三藏聖教序>, 672年刻 拓帖(조선후기 翻刻本) 26×13cm, 서울 개인.



圖 15. 尹淳, <霜峯大師碑銘>, 1716년 拓帖, 서울 개인.



圖 16. 李邕, <李思訓碑銘>, 739년 이후 拓帖(宋拓) 23.2×11.2cm, 일본 개인.

有明朝鮮國完山李
公墓碣銘并序
余少從李樂僉敬躋
民講三世好如兄弟

圖 17. 尹淳, <李昌發墓碣銘>, 1728년
拓帖 縱33cm, 서울 개인.

擬古
青松勁挺姿凌霄
耻居盤種、出枝葉上
連上松端秋花起烽烟
旆旌室錦殿不羞不
自立舒光射丸、相見

圖 18. 米芾, <蜀素帖>, 1088년 絹本 27.8×270.8cm, 일본 개인.

右議政 下執事
白下候書
壬子閏月十六日 侍敘生尹淳頓首
伏未審盛暑
勻體若何似用
感良以留 肅
命心因此遠就否不任區、何慮之
至第觀又家四面楚歌漸不免傾
倒皇極
盛業你倫似或終難於默看祥和
感字坐鎮結：果有著手之地否
初 廷敷奏其以何者為第一義也
竊自憂念而已淳冒炎看山勞唱
大任方必昏委不振奈何
先帝詩卓今如奉納得不可避之
太簡痛之否 新阡歷茲整登接去
御人軍皆言角勢難得而肝穴失宜
云其言似也但今日畿山安得如此美

圖 19. 尹淳, <書簡>, 1732년 紙本 37.4×51.8cm, 서울 개인.

敬
 答
 四
 納
 拜
 書
 多
 感
 況
 承
 明
 日
 之
 約
 尤
 荷
 仰
 來
 糧
 饌
 領
 謝
 之
 意
 僧
 泥
 嘗
 必
 教
 而
 思
 不
 適
 亦
 貴
 人
 之
 口
 也
 留
 奉
 不
 暇
 伏
 惟
 乞
 照
 以
 回
 中
 厚
 意

圖 20. 尹淳, <書簡>, 紙本, 서울 개인.

昔
 非
 才
 當
 刻
 忘
 尺
 音
 敬
 款
 然
 比
 想
 慶
 侍
 為
 益
 增
 勝
 小
 詩
 目
 以
 奉
 空
 希
 聲
 吾
 莫
 友
 竹
 前
 槐
 後
 十
 陰
 環
 壺
 領
 善
 齊
 屢
 法
 還
 雅
 興
 欲
 為
 十
 字
 具
 人
 和
 端
 伎
 一
 身
 閑

圖 21. 米芾, <尺牘>, 紙本 29.3×32.8cm, 臺北 故宮博物院.



圖 22. 尹淳, <杜甫詩古栢行>, 1731년 帖 絹本
59.1×36.4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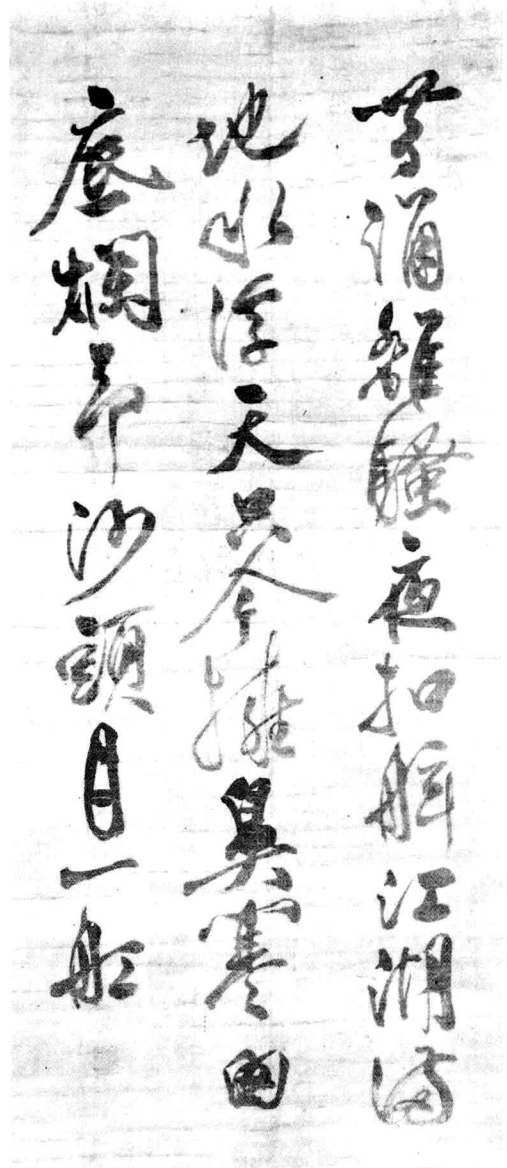


圖 23. 尹淳, <七言絕句>, 軸 絹本
124.7×54.8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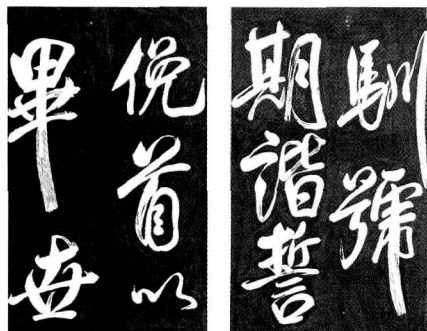


圖 24. 米芾, <米海岳天馬賦>, 帖 雙鉤填墨本 40.9×26.3cm, 한국정신문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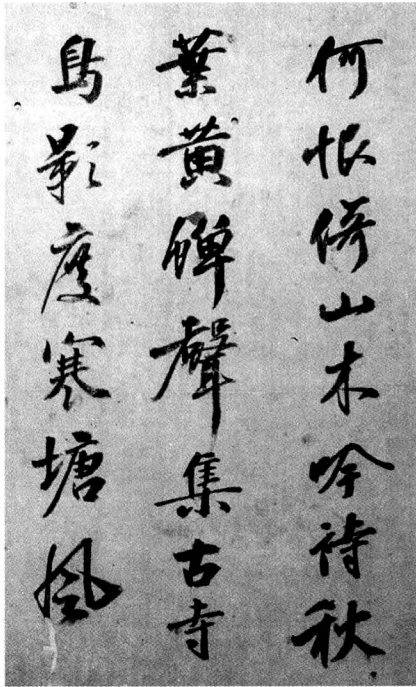


圖 25. 尹淳, <五言律詩(부분)>, 絹本 31.2×19.7cm 尹淳筆書畫帖 所收,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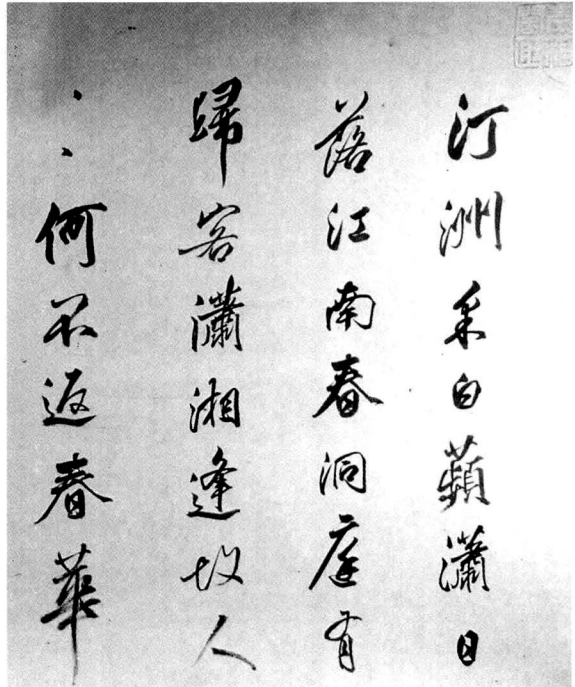


圖 27. 尹淳, <古詩(부분)>, 1737년 紙本 세로44.9cm 尹白下筆書軸 所收,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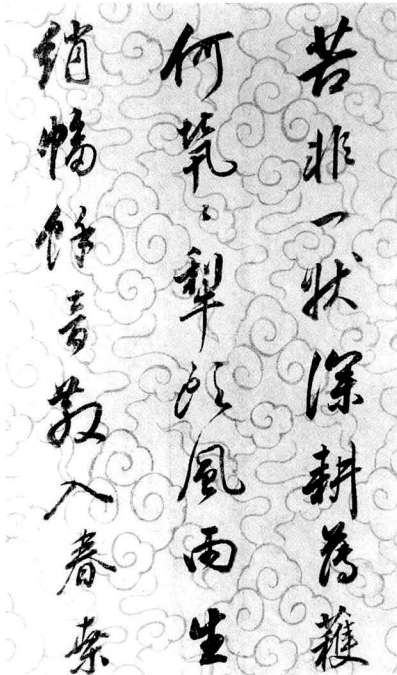


圖 26. 董其昌, <卯風圖詩>, 1621년 卷 紙本 40.5×234cm, 일본 개인.



圖 28. 董其昌, <臨蘇黃米蔡帖(臨米帖 部分)>, 1607년 卷 絹本 縱29.3cm, 北京 故宮博物院.

辭不遠行邁
 於此長
 如滿已
 得道里
 遠如何
 中修能
 流水赴
 大經孤雲
 還暮山
 有情尚
 有歸
 行子何
 獨難經
 車背
 鄉園親
 如卷行
 幼麓冬
 霜斷
 膚日入
 不還息
 夢歡容

候變寒
 若人事
 由中興
 遠知水
 玉徒貞
 黃鳥何
 閑幽蘭
 之歷此
 時深閣
 婦日此
 何面裏
 如樓青
 鐵徽
 儲玉蕊
 自惜桃
 李年誤
 身游俠
 王無事
 大難別
 不知今
 死

歲已未
 浴佛後
 三日
 下寫書
 于木蓮
 棚下

圖 29. 尹淳, <五言詩>, 1739年 卷 紙本
 33×51.5cm, 간송미술관.

松風閣
 依山築閣見平
 川夜闌箕斗插
 屋椽我來名之
 意適然老松魁
 梧數百年斧斤
 所斲今冬天
 風鳴媧皇五十

圖 30. 黃庭堅, <松風閣詩卷>, 1102年 卷 紙本, 臺北 故宮博物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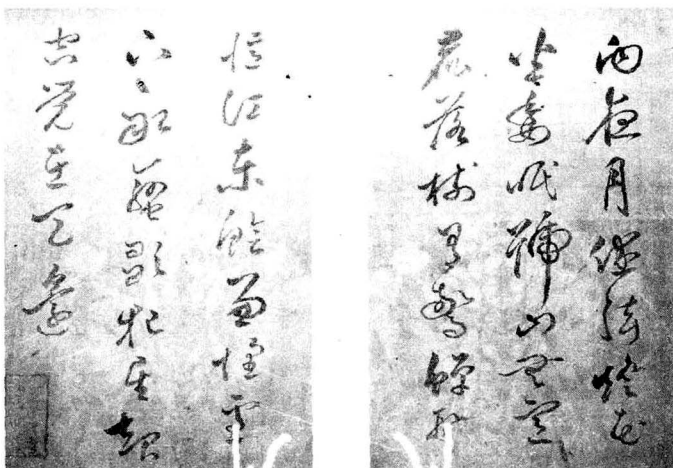


圖 31. 尹淳, <五言律詩>, 絹本 31.2×19.7cm 尹淳筆書畫帖 所收,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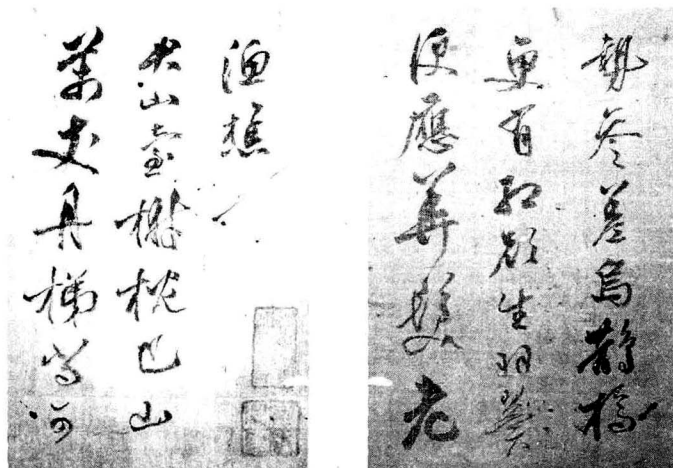


圖 32. 尹淳, <七言律詩(부분)>, 絹本 31.2×19.7cm 尹淳筆書畫帖 所收,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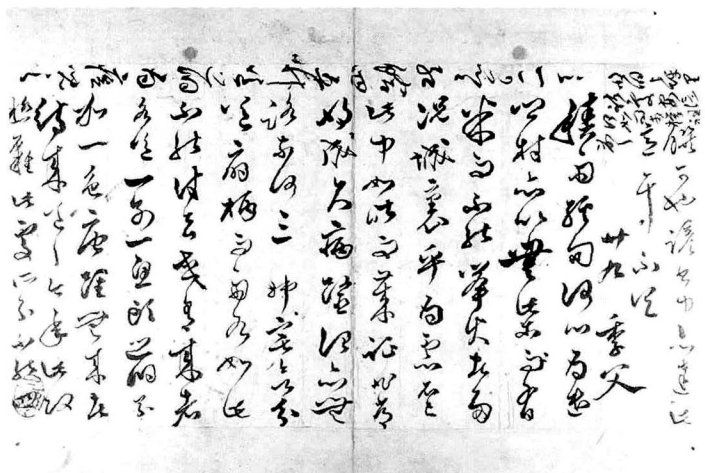


圖 34. 尹淳, <書簡>, 紙本 23.1×43.2cm 『諸名賢手牘』所收, 서울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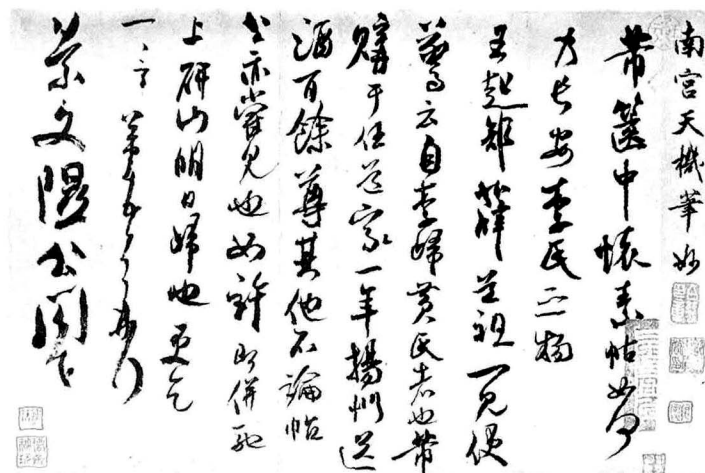


圖 33. 米芾, <尺牘>, 紙本 27.8×38cm, 臺北 故宮博物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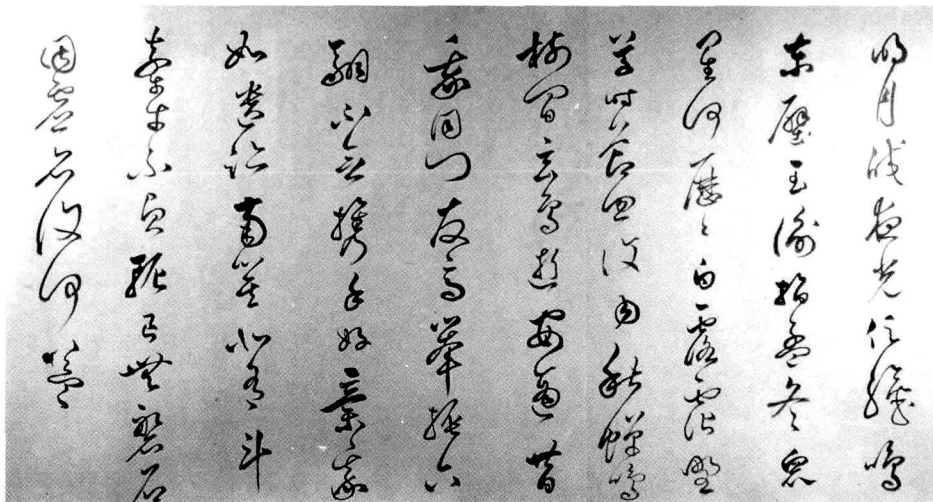


圖 35. 尹淳, <古詩>, 1737년 卷 紙本 縱44.9cm 尹白下筆書軸 所收,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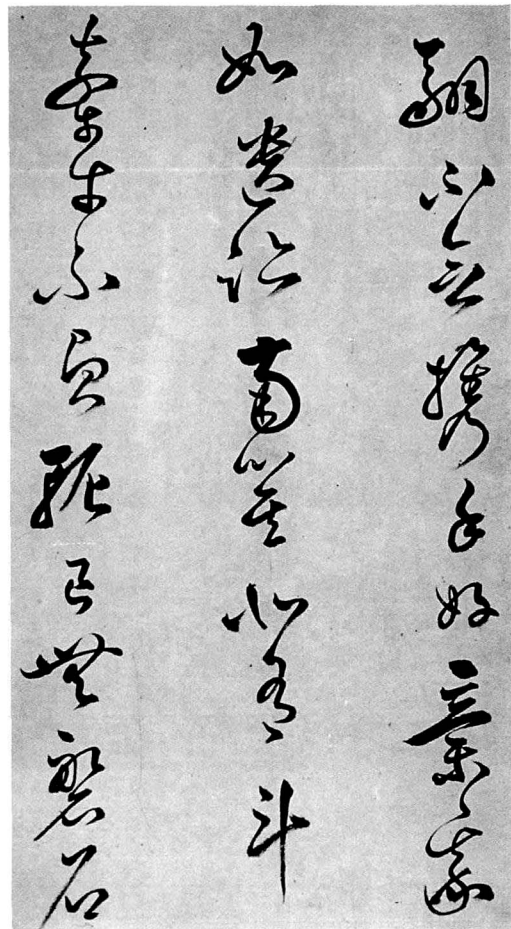


圖 35-1. 圖 34의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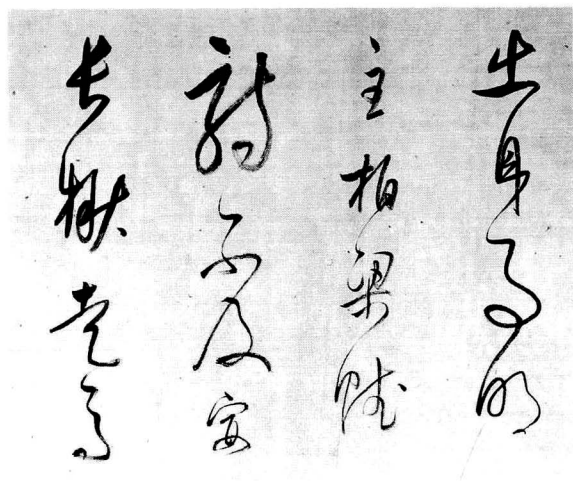


圖 36. 董其昌, <放歌行>, 1630년경 橫卷 絹本 32×645.2cm, 중국 上海博物館.



圖 37. 尹淳, <箴言(부분)>, 紙本 15×17cm 白下墨妙帖 所收, 서울대학교 규장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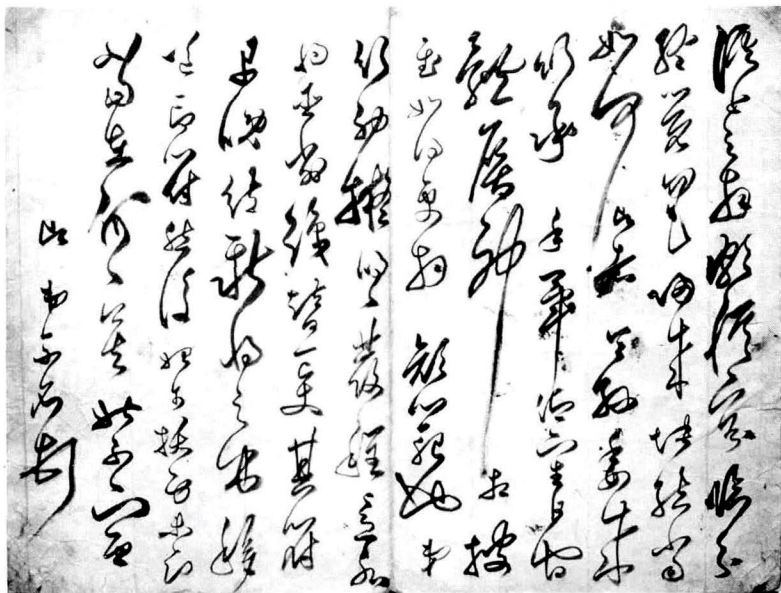


圖 38. 尹淳, <書簡>, 紙本 尹白下簡札帖 所收, 서울 개인.



圖 39. 圖 4의 印文.
「尹淳章」1.75×1.75cm,
「白下」1.7×1.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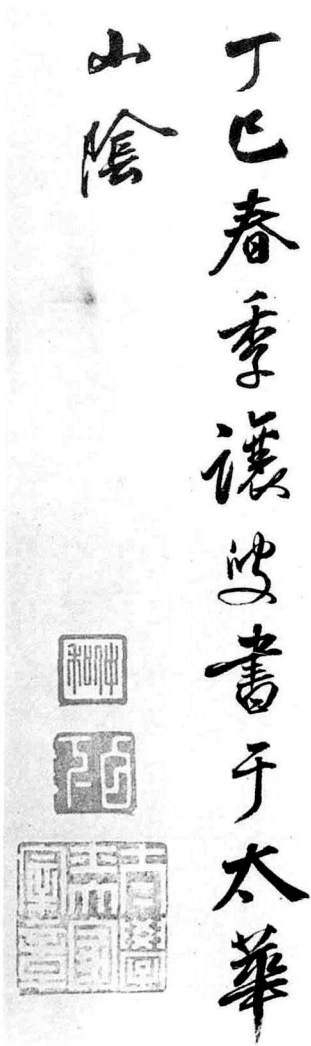


圖 40. 尹白下筆書軸(圖 2·
12·27·35)의 印文.
「仲利」2.5×2.5cm,
「白下」2.9×2.9cm,
「太學士大家宰章」5.4×5.4cm.